

201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제45회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
2017.10.12(목) 07:30~09:00
더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 홀(22F)

목차

- I.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국내경제 전망
 - II. 거시경제의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III.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 IV. 경영 및 정책과제
- [첨부] 종목별 초회 / 계속보험료 전망

I.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국내경제 전망

1. 세계경제
2. 국내경제 주요 이슈
 - 1) 생산가능인구와 잠재성장률
 - 2) 부채와 내수
 - 3) 가계부채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 4) 부동산 정책과 경제성장
 - 5) 중국 리스크
 - 6) 유가
 - 7) 북한 핵실험과 금융시장 변동성
3. 2018년 경제전망
 - 1) 경제성장률
 - 2) 물가상승률
 - 3) 금리

1. 세계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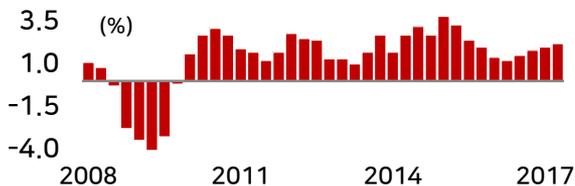
- 미국과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세 확대로 2018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7년 3.5%보다 높은 3.6%로 전망
 - 미국 경제는 부채조정과 내수회복으로, 유로지역은 수출과 내수회복을 통해 경기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반면 중국 경제는 성장세 둔화추세 지속
-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장기금리 상승세 가속화를 통해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주요국 경기회복세

2017(E)

2018(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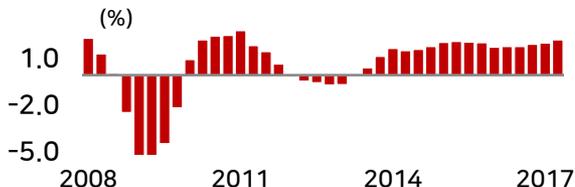
미국



2.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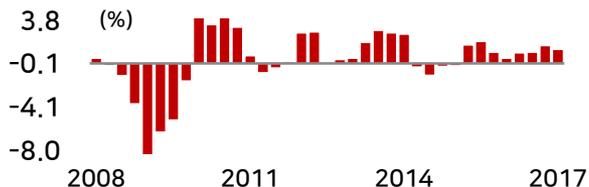
EU



1.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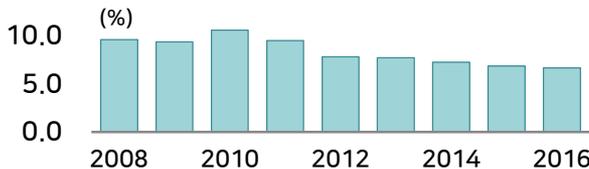
일본



1.3

0.6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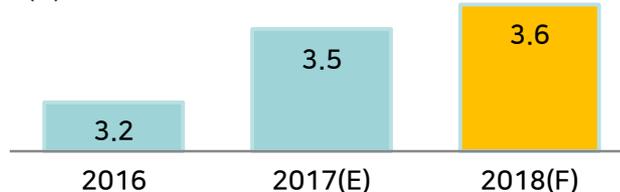


6.7

6.4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자료: IMF WEO update(2017.7)

세계경제 위험요인

-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브렉시트 이후 협상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 중국의 산업 고도화를 위한 구조조정
 - 중속성장 체제로의 전환, 부채문제로 인한 불확실성
-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2. 국내경제 주요 이슈

- 1) 생산가능인구와 잠재성장률
- 2) 부채와 내수
- 3) 가계부채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 4) 부동산 정책과 경제성장
- 5) 중국 리스크
- 6) 유가
- 7) 북한 핵실험과 금융시장 변동성

1)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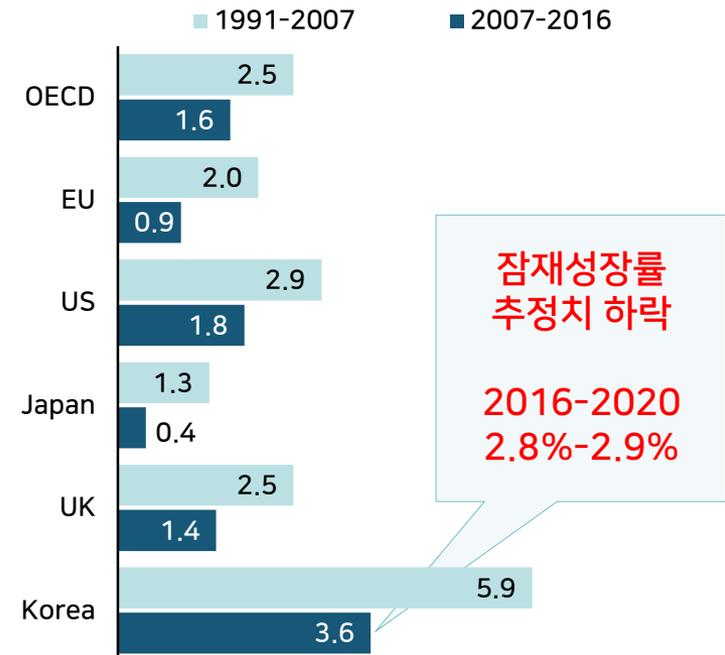
-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생산가능인구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가속화시킬 우려
- 우리나라보다 먼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경제위기를 경험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경험한 주요국 현황

	생산가능인구 비중 정점 시기	정점 당시 생산가능인구 비중	비고
일본	1992	69.8	1990년 버블붕괴
독일	1987	70.1	
이탈리아	1993	69.4	
포르투갈	1998	67.5	PIGS
스페인	2005	69.0	PIGS
그리스	2000	68.0	PIGS
프랑스	1988	66.0	
한국	2016	73.2	2018년 위기설

자료: OECD, World Pop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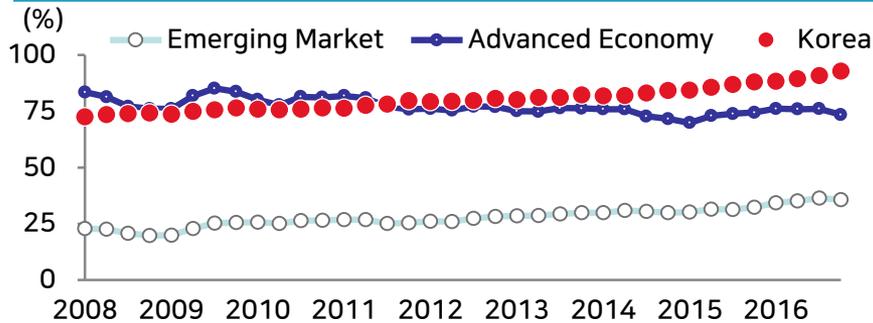
주요국 잠재성장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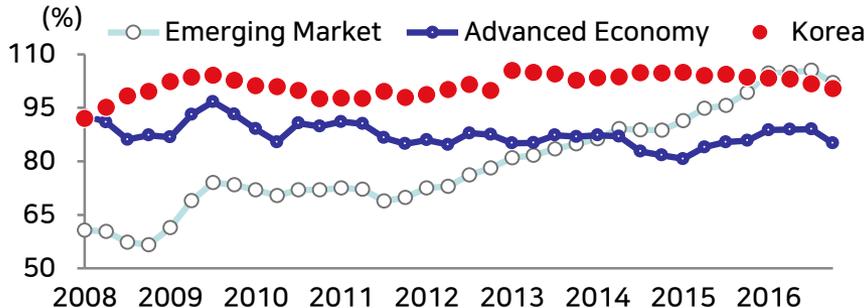
2) 부채와 내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가계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2012년 이후 선진국 평균 75%를 넘어섰고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음. 제조기업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2012년 이후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가계부채 증가율과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5년까지 같은 방향이었으나 2016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됨
- 기업은 설비투자를 줄이면서 기업부채비율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요국 가계의 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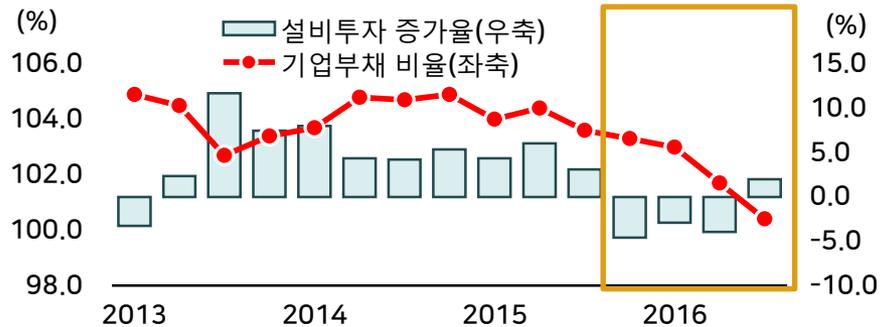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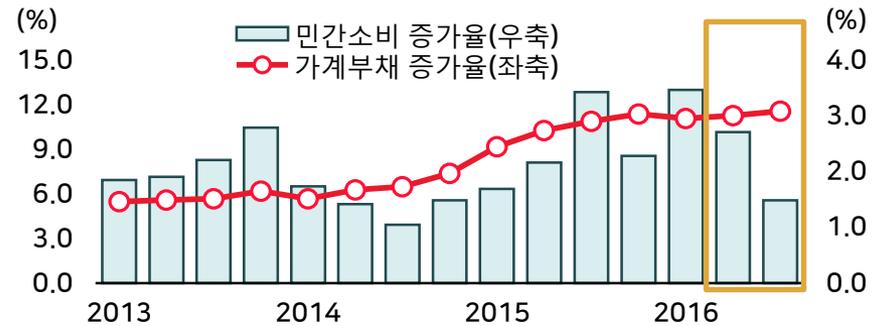


주요국 제조기업의 부채 비율



자료: BIS

GDP대비 부채비율과 민간소비,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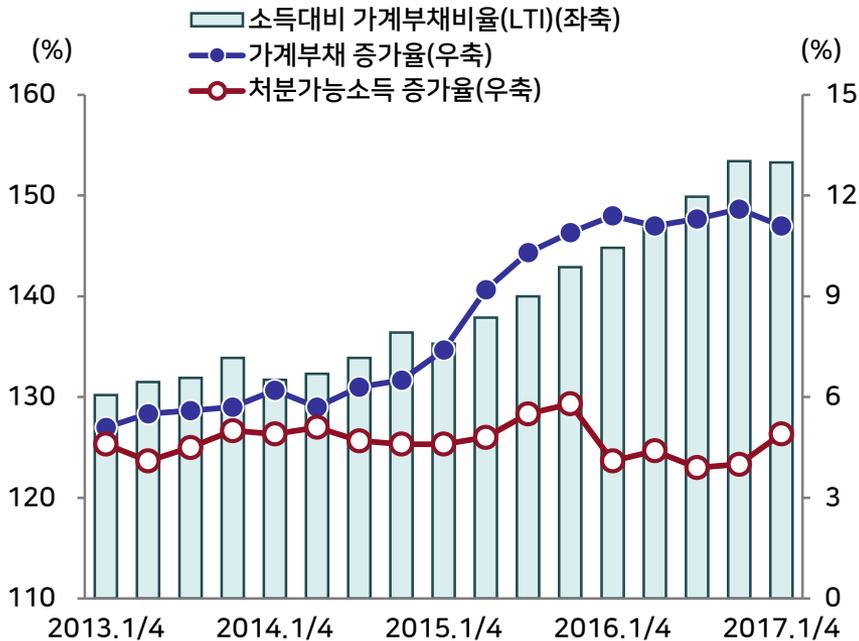


자료: BIS(2017), 한국은행

3) 가계부채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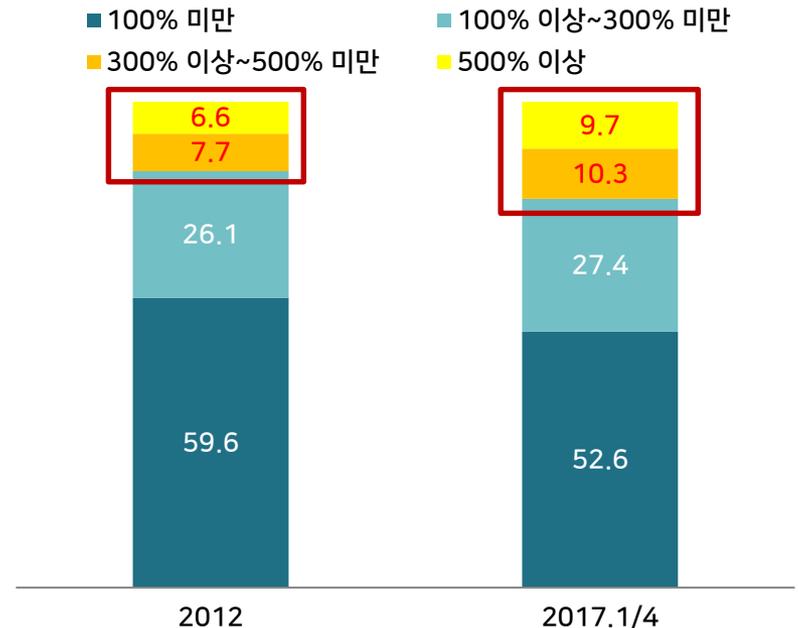
- 가계부채 증가로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까지 상승하고 있으나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정체되어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 300%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2012년 14.3%에서 2017년 1/4분기 20%로 상승

가계부채 관련 주요 지표



자료: 한국은행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LTI)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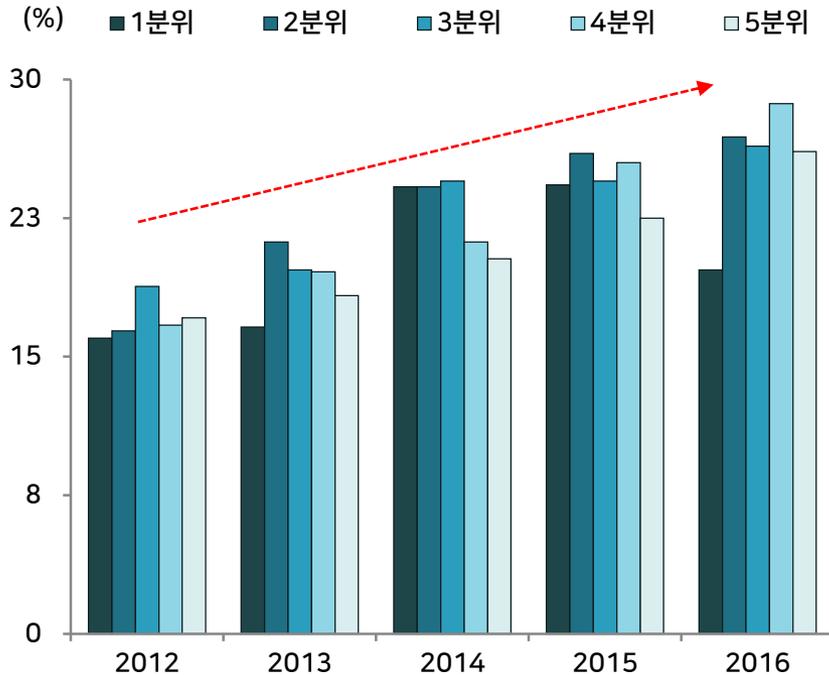


주: 1) LTV 구간별 분포는 차주 수 기준
 2)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3) 가계부채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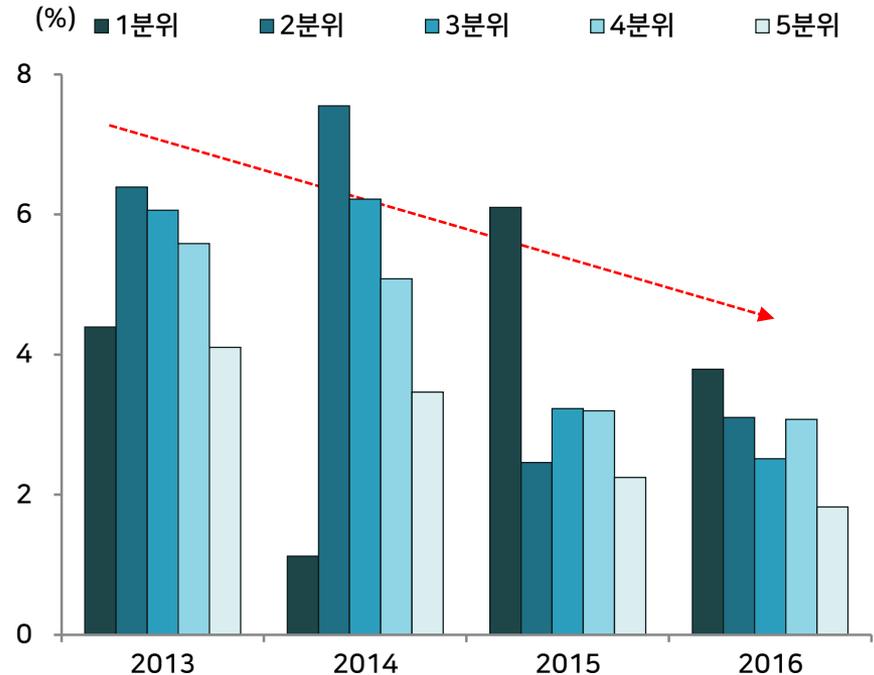
- 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 등 중산층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2012년 이후 상승하고 있음
- 가처분소득 개선이 미약한 상황에서 금리상승 충격은 가계의 소비여력 약화 우려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자료: 한국은행

가계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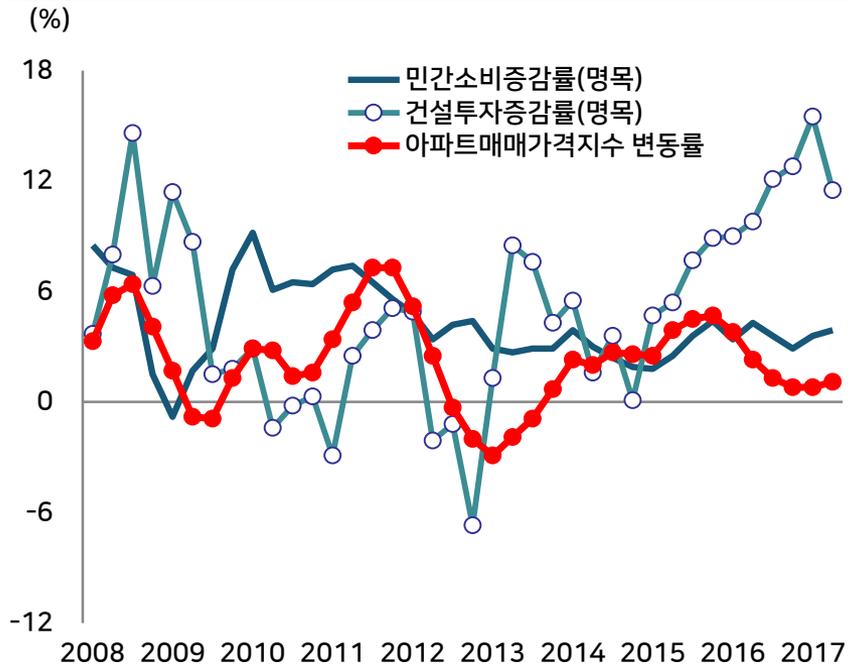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4) 부동산 정책과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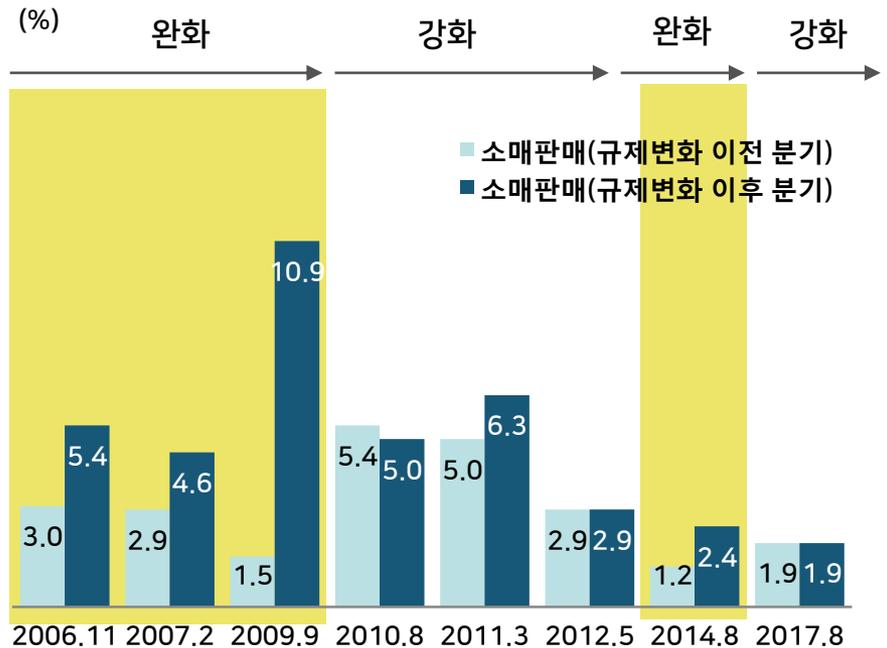
- 8.2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확대될 경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 확대 우려
 -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함
- 2017년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내수 위축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과 내수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감정원; 한국은행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후 소매판매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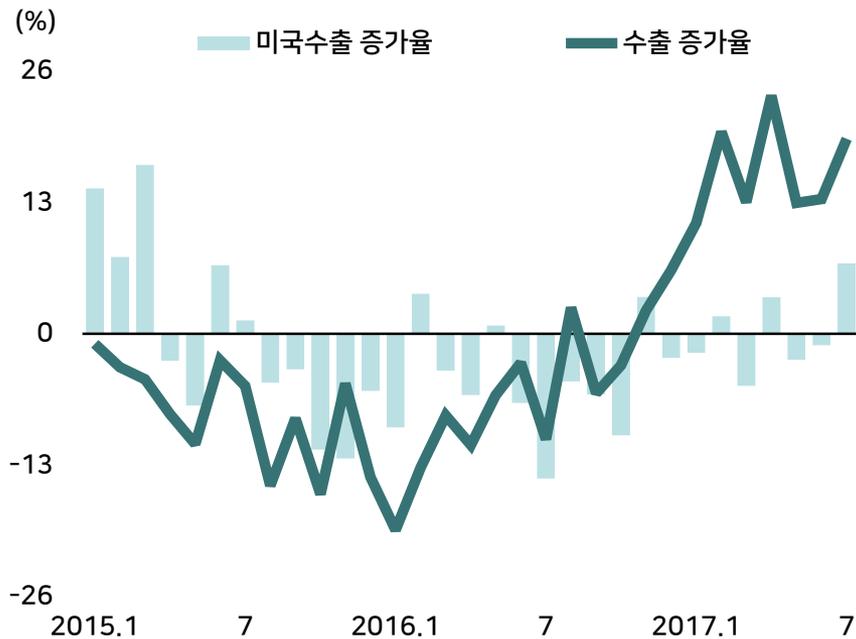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5) 중국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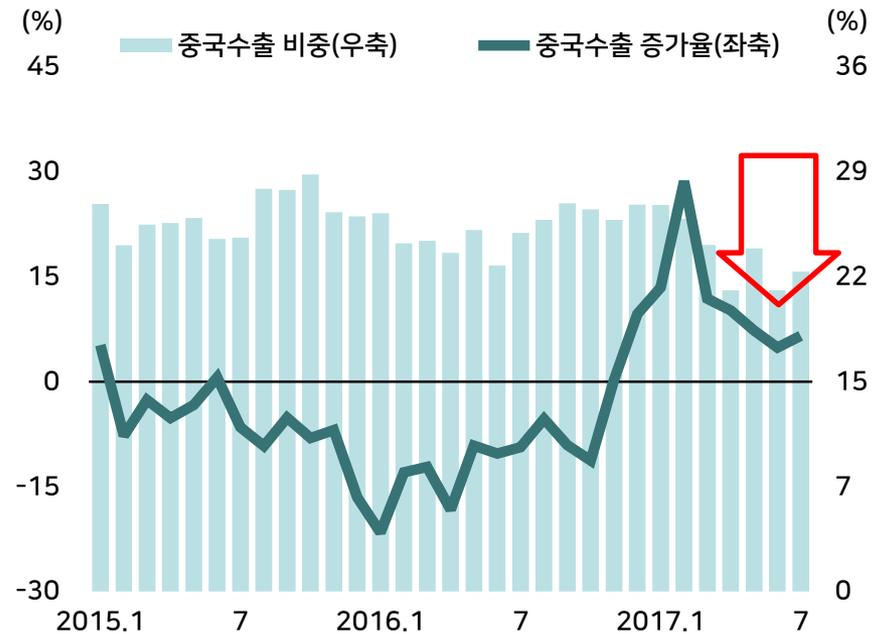
-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리스크로 중국에 대한 수출은 감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안보 이슈로 인한 중국 리스크, 한미 FTA 재협상 등은 우리나라 수출 변동성을 확대시킬 우려

우리나라 수출총액과 미국에 대한 수출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율과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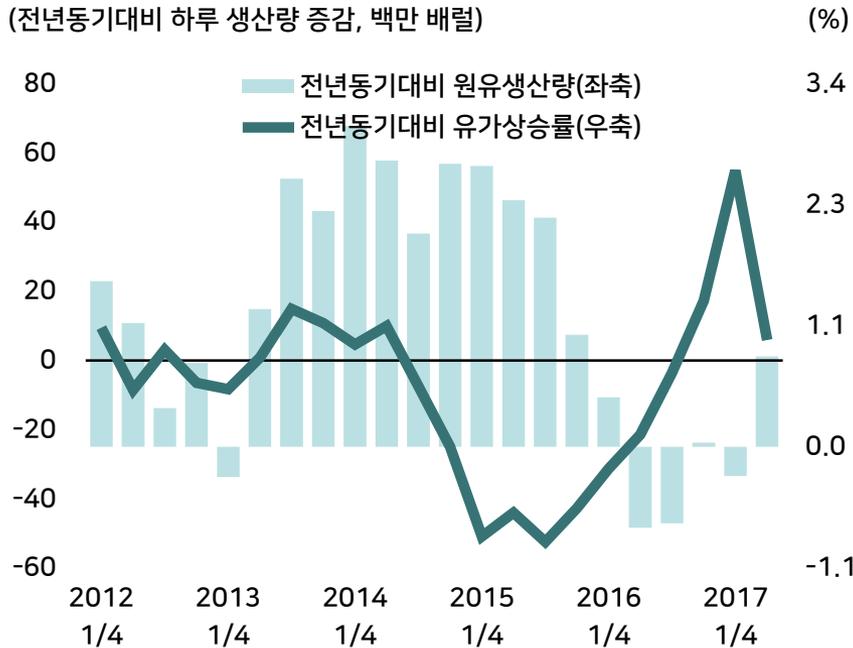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6)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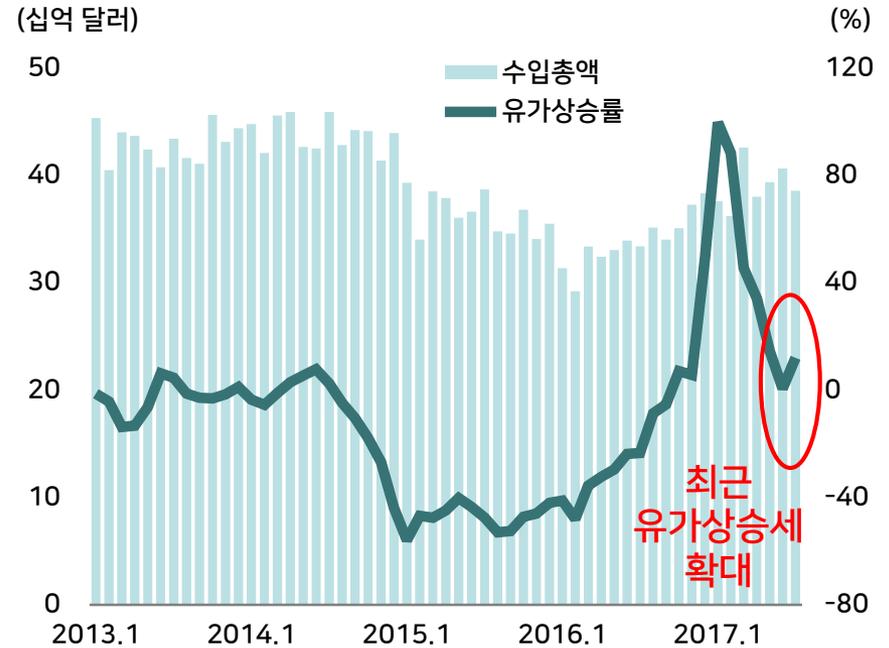
- 세계경제 회복세는 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원유생산량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2018년 유가는 배럴당 50달러 내외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상승은 순수출 감소, 물가상승과 금리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우려

원유생산량 증감과 유가 상승률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gency

유가 상승률과 수입



7) 북한 핵실험과 금융시장 변동성

-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 안전자산 선호현상 심화로 원화가치가 약세로 전환될 경우 자본유출이 확대될 수 있고 금리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

북한 핵실험 시기



안전자산 선호현상 심화

	2006.9.10	2009.5.25	2013.2.12	2016.1.6	2016.9.5	2017.9.3
엔/달러 환율	+0.43	+0.28	+0.91	-0.71	-0.61	-0.55
미국 국채금리(5년)	+0.0215	+0.1021	+0.0145	-0.0705	-0.0745	-0.0969
국제 금값	-21.05	+1.45	+3.2	+15.99	+2.38	+7.45
원/달러 환율	+1.15	+1.15	-1.71	+8.98	-12.11	+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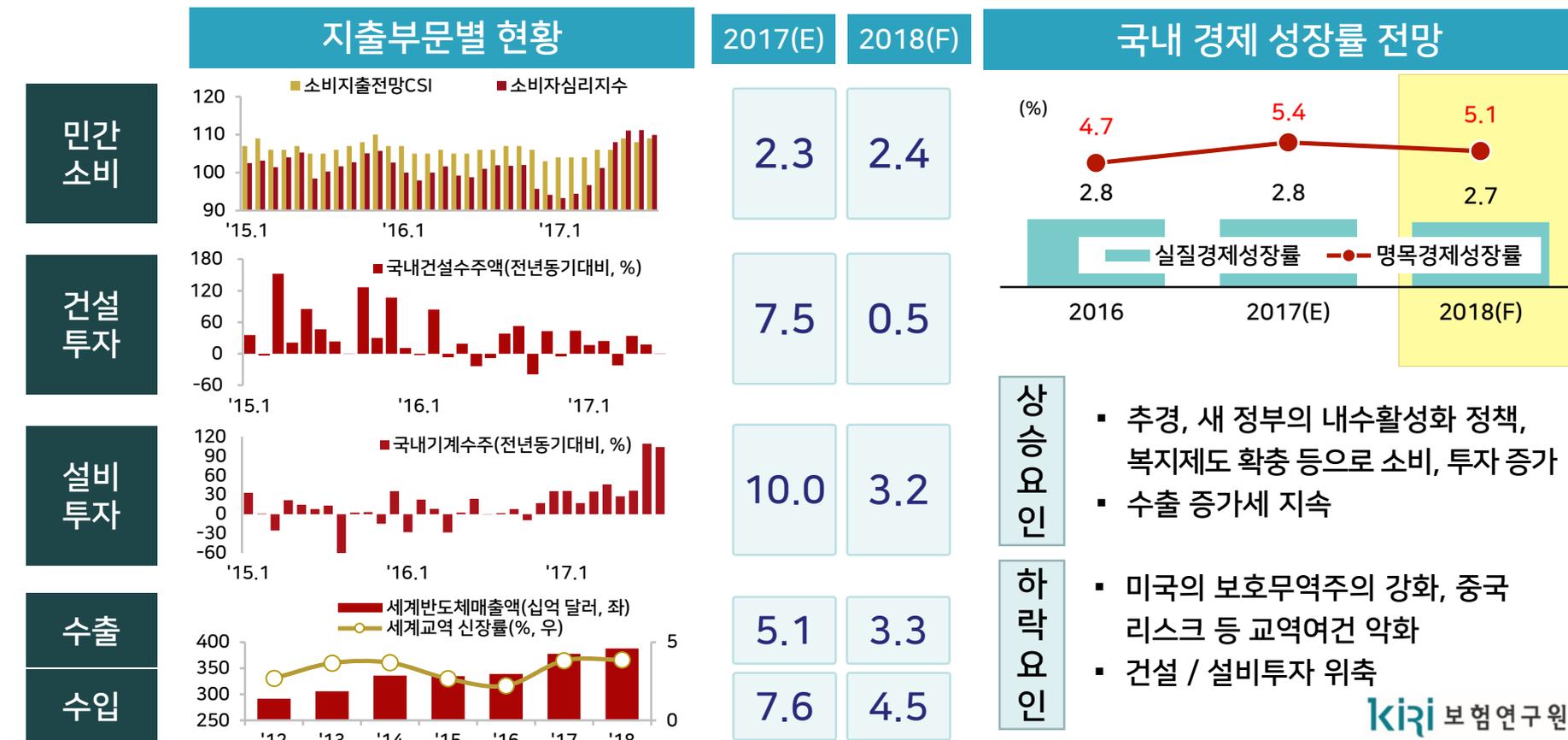
주: 전일종가대비 변동폭 (단위: %, %p)
 자료: Bloomberg

3. 2018년 경제전망

- 1) 경제성장률
- 2) 물가상승률
- 3) 금리

1)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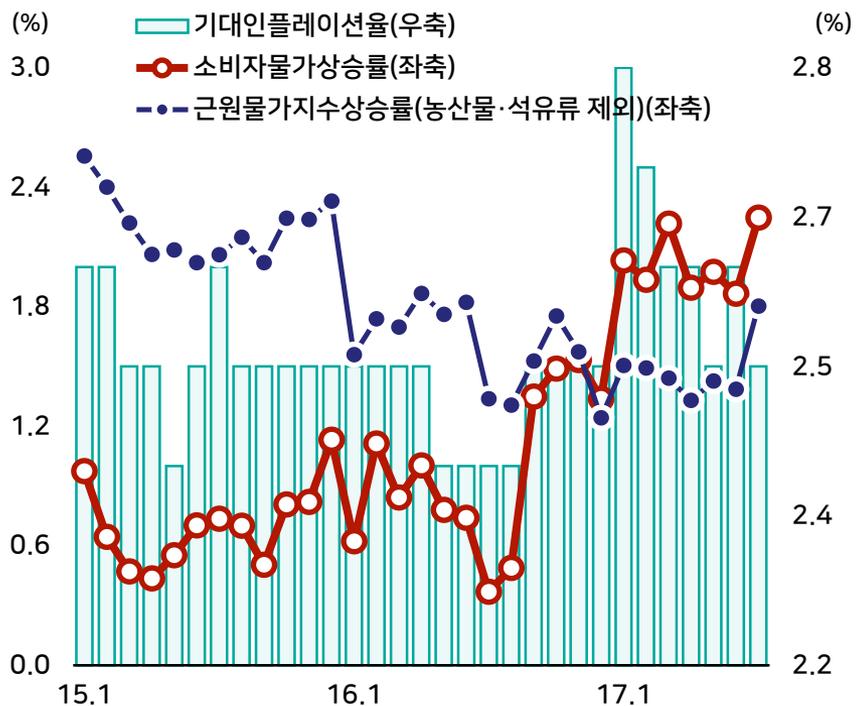
- 2017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견조한 수출 증가, 건설투자 증가 등으로 2.8% 성장할 전망
- 2018년 경제성장률은 8.2 부동산 정책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한 건설투자 둔화와 설비투자 둔화, 순수출 감소 등으로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물가상승률

- 2016년 하반기 상승하기 시작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및 유가 상승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음
 - 2016년 하반기 이후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하고 있고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됨에도 물가상승률은 상승
- 2018년 소비자물가는 기초적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임에 따라 1.9% 상승할 전망이다

주요 물가지수 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물가상승률 전망과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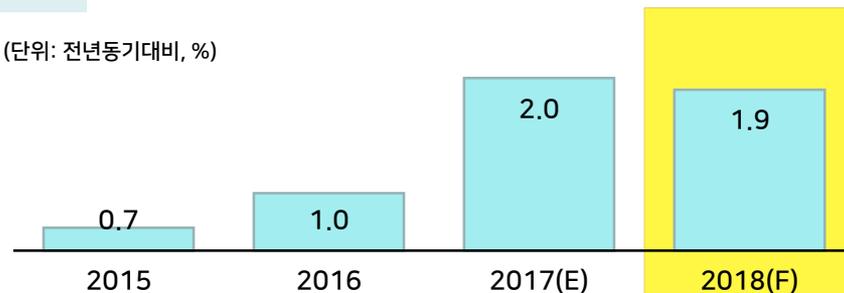
상승
요인

-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원화 약세
- 경기개선, 고용여건 개선으로 인한 임금상승세 확대 및 유가 상승

하락
요인

- 미국 세일오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유가 하락
-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한국은행

3) 금리

- 국내 물가상승률 상승과 미국 금리 상승으로 국내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해외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으로 인해 2018년 중 한 차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국고채 금리(3년 물)는 2017년 1.8%, 2018년 1.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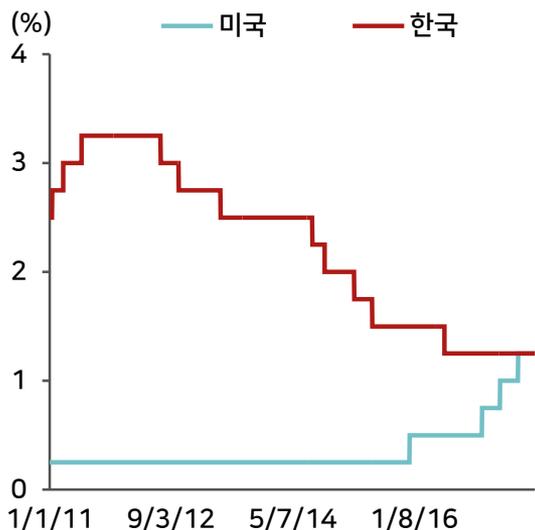
상승 요인

- 경기개선,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과 물가상승세
-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금리 상승

하락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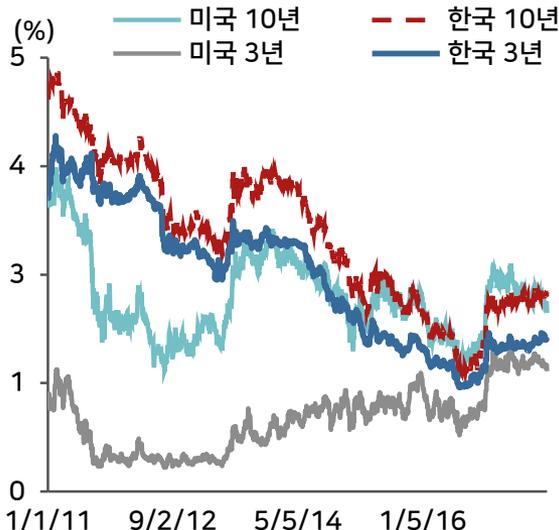
-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기준금리 동결
- 북핵 리스크, 중국 리스크 확대에 의한 경기둔화

기준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기준금리 전망

투자은행	'17.3Q	'17.4Q	'18.1Q	'18.2Q
BoA-ML	1.25	1.25	1.50	1.50
Barclays	1.25	1.25	1.50	1.50
Goldman Sachs	1.25	1.25	1.50	1.50
HSBC	1.25	1.25	1.25	1.50
JPMorgan	1.25	1.25	1.25	1.50
UBS	1.25	1.25	1.25	1.50

주: 2017년 8월 기준
자료: 국제금융센터

II. 거시경제의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1. 보험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2. 보험산업 성장성
3. 금리상승의 영향
 - 1) 보험회사 건전성
 - 2) 생명보험 해약률
 - 3) 위험보장 공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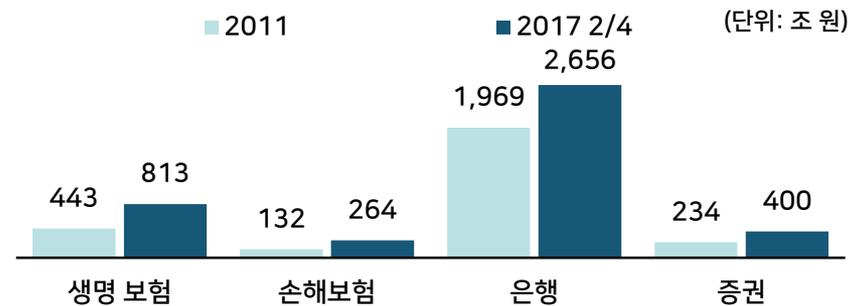
1. 보험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 우리나라 GDP대비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6년 5.42%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2015년 기준으로 일본(4.48%), 독일(4.07%)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2/4분기 보험산업 자산규모는 1,077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가계금융자산의 31.7%를 보험/연금 자산이 차지, 국민의 주요 저축, 위험보장 수단으로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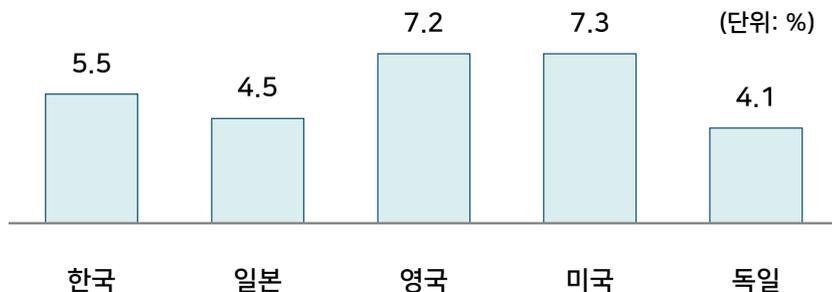
우리나라 GDP대비 금융·보험업 부가가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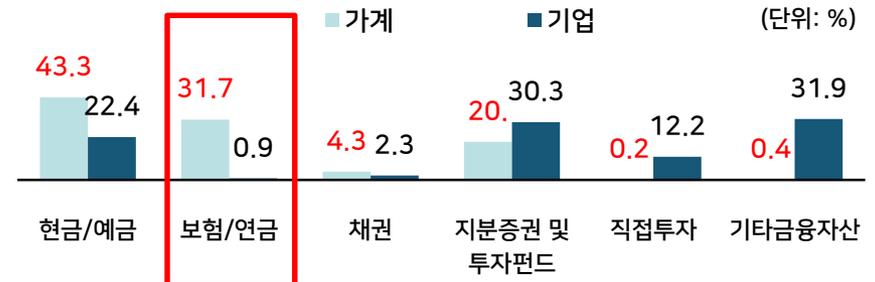
2017년 2/4분기 업권별 자산규모 비교



2015년 주요국 GDP대비 금융보험업 비중



2017년 2/4분기 가계와 기업의 금융자산 비교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2017.6)

2. 보험산업의 성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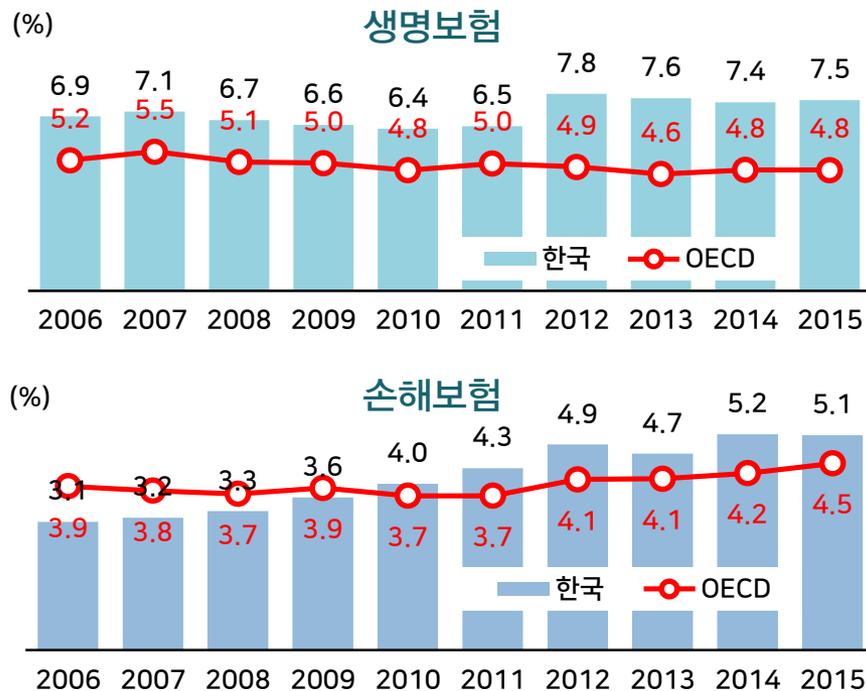
- 경제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보험계약실적(신계약 건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생명보험 침투도는 2012년 7.8%에서 2015년 7.5%로 감소하였으나 OECD평균보다 높아 성장 여력이 위축되는 것으로 보임
- 손해보험 침투도는 2009년까지 OECD 평균수준 보다 낮았으나 2010년 이후 OECD평균보다 상승

명목경제성장률과 보험계약실적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 보험침투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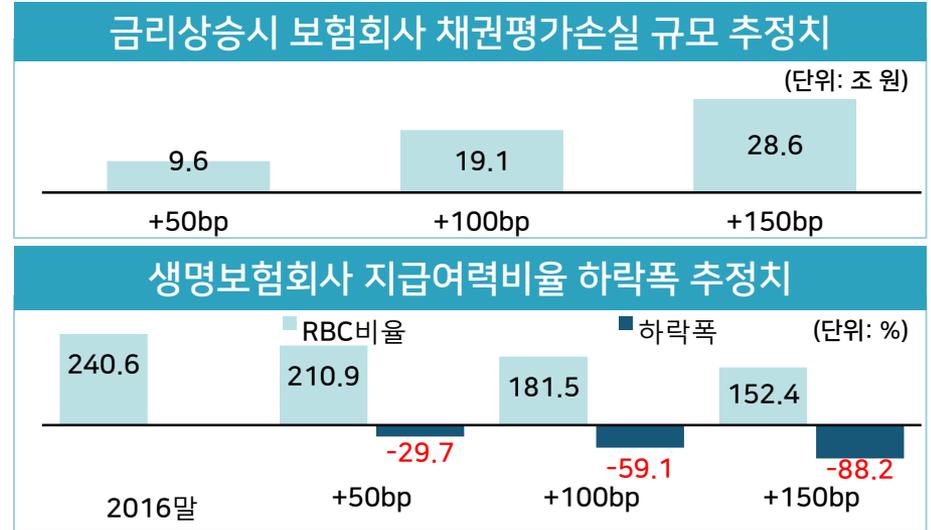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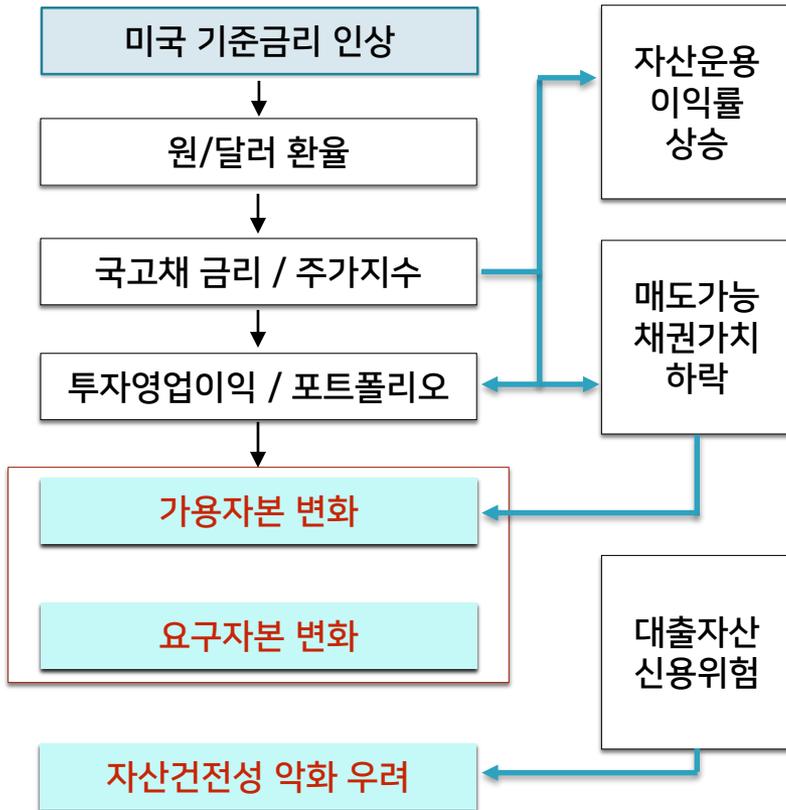
자료: OECD

3. 금리상승의 영향

- 1) 보험회사 건전성
- 2) 생명보험 해약률
- 3) 위험보장 공백

1) 보험회사 건전성

- 금리 상승으로 인한 보유 채권가치 하락으로 가용자본 감소, 신용위험으로 대출자산 건전성 악화 우려
- 회계제도 개정,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이후 수익성과 건전성이 낮은 보험회사들에 대한 금리상승 영향은 클 것임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7.6)

2017.1/4분기 보험회사 운용자산대비 대출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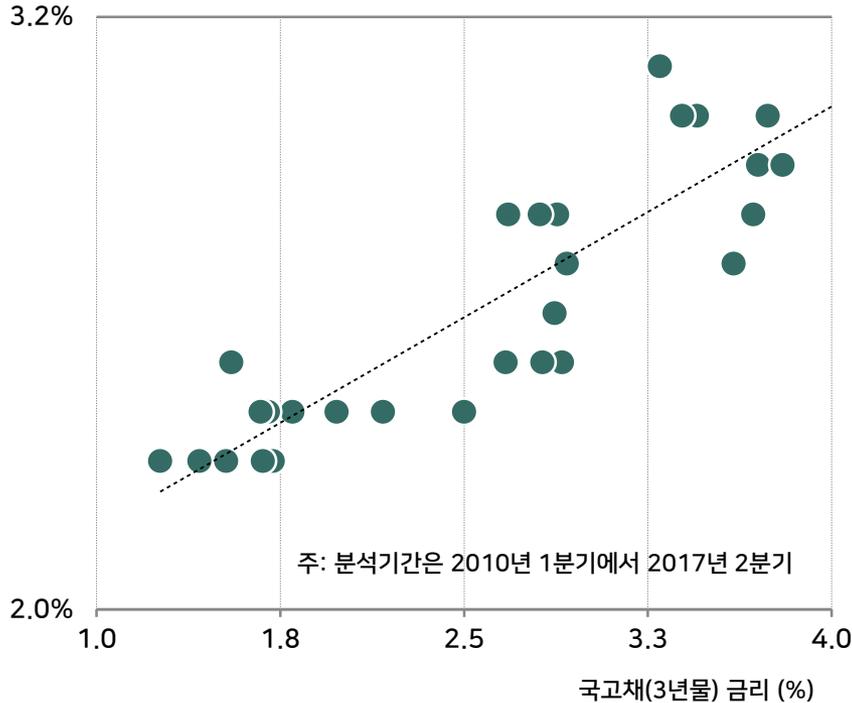
	약관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합계
생명	6.7	5.8	4.0	2.6	19.1
손해	5.4	12.1	2.0	9.4	28.9

2) 생명보험 해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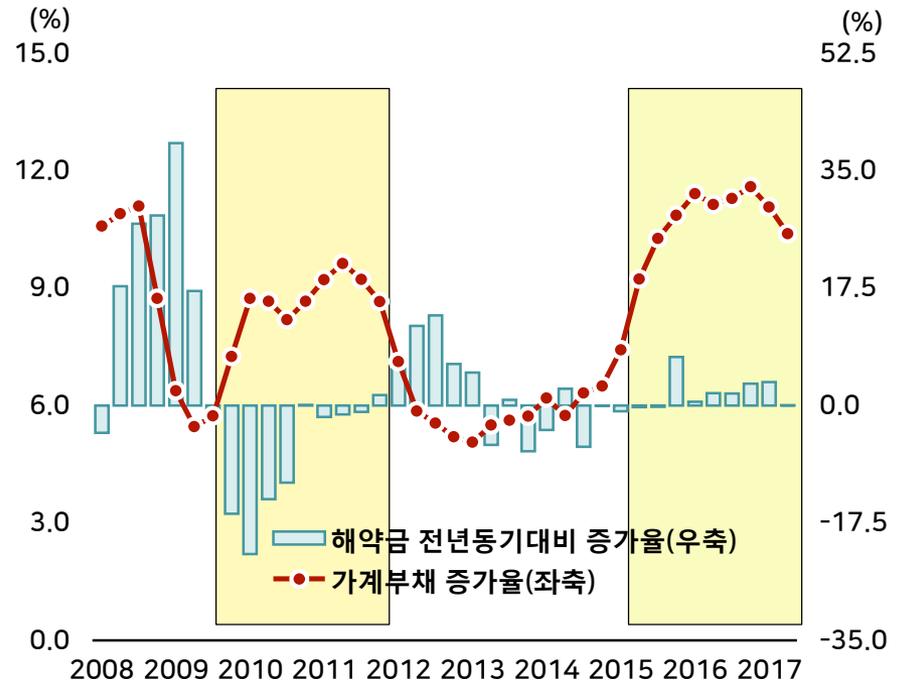
- 금리 상승은 생명보험 해약률 상승으로, 가계부채 증가 억제는 보험 해약금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2010-2012년, 2015-2017년 해약금액 증가율은 낮았음
- 해약금액 증가, 해약률 상승은 가계의 건강 및 소득 위험 확대를 의미함

국고채 금리와 보험 해약률

보험해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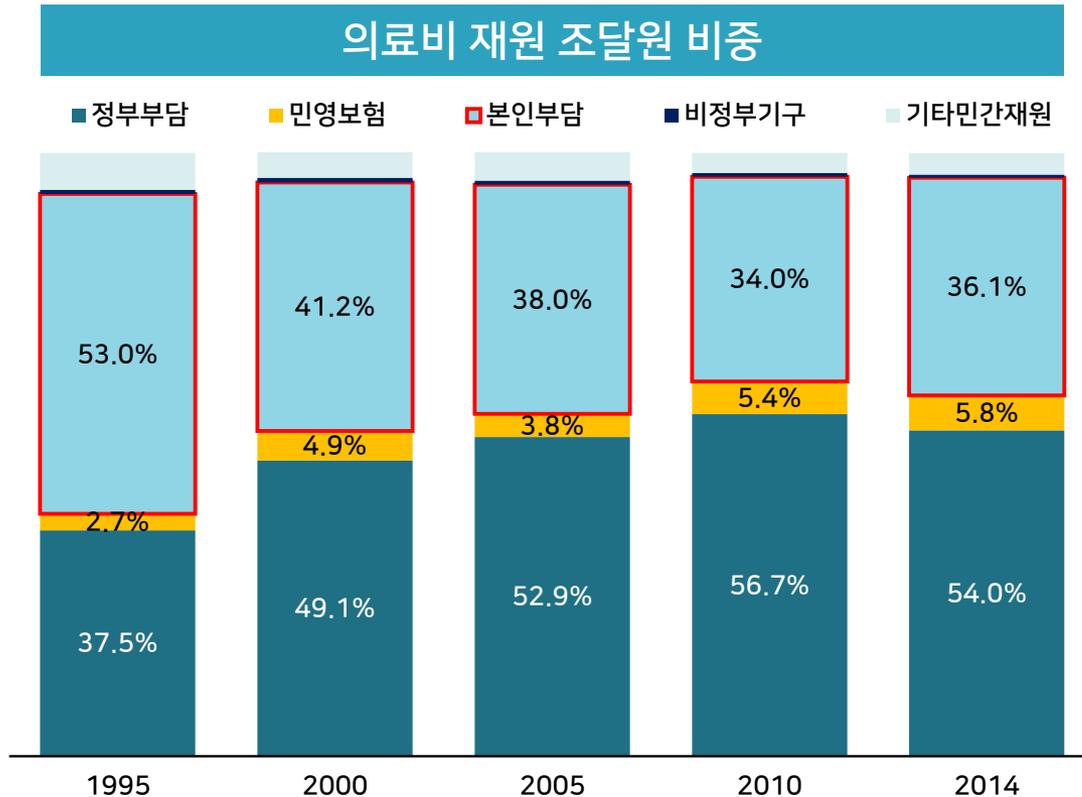


가계부채 증가율과 해약금액 증가율



3) 위험보장 공백_의료비

- 개인이 본인부담(Out of Pocket Expenditure)하는 의료비 지출 비중이 2014년 36%로 미국(11%), 일본(14%)에 비해 높아, 보험을 해약할 경우 가계의 건강위험은 더 커질 수 있음
- 상해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 해약이 증가할 경우 상해와 암 발생이 가계에 미치는 충격은 더 클 것임



**우리나라 가계의 건강위험은
일본,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가계 혹은 개인이 본인부담하는 의료비 국제 비교
- 2014년 일본(14%), 미국(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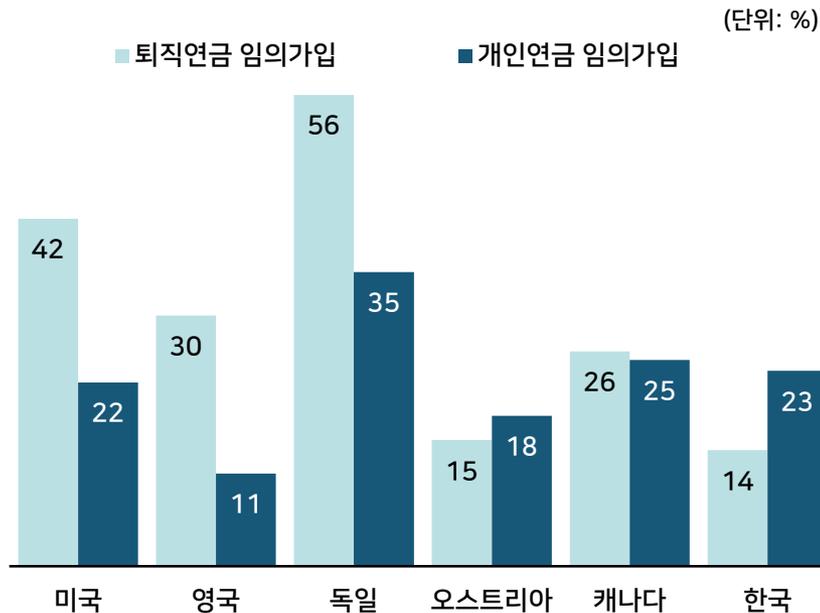
- 국민건강보험 등을 통한 의료비 조달

자료: National Health Account, WHO (2016)

3) 위험보장 공백_노후소득

- 사적연금 가입률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원금과 이자 부담 증가는 가계의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노후소득 보장 위험 확대의 주된 원인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시급한 자금사용처가 많기 때문임

주요국의 자발적 사적연금 유형별 가입률



주: 1) 2013년 기준

2) 생산활동인구(16~64세) 대비 가입률

3) 우리나라를 제외한 비교대상 국가들은 퇴직연금을 임의로 가입하고 있음

자료: OECD(2015c), p. 187; OECD(2011), p. 173

노후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구분	사례 수	소득이 너무 낮아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더 시급하게 돈 쓸 데가 많기 때문에	노후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 젊어서
전체	1,211	24.7	49.5	13.9
20대	225	31.7	10.4	46.8
30대	277	23.7	47.1	18.0
40대	293	13.8	76.1	3.3
50대	224	22.0	64.6	1.0
60세 이상	194	37.4	40.6	0.6

자료: 보험연구원(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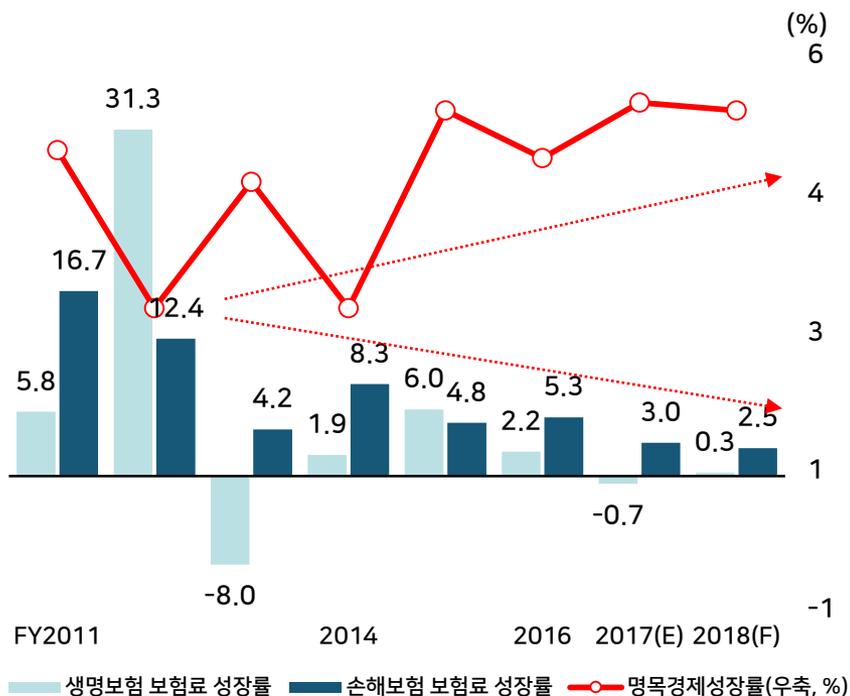
Ⅲ.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1. 보험산업 보험료
 - 1) 수입보험료
 - 2) 초회보험료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4. 보험권 퇴직연금
5.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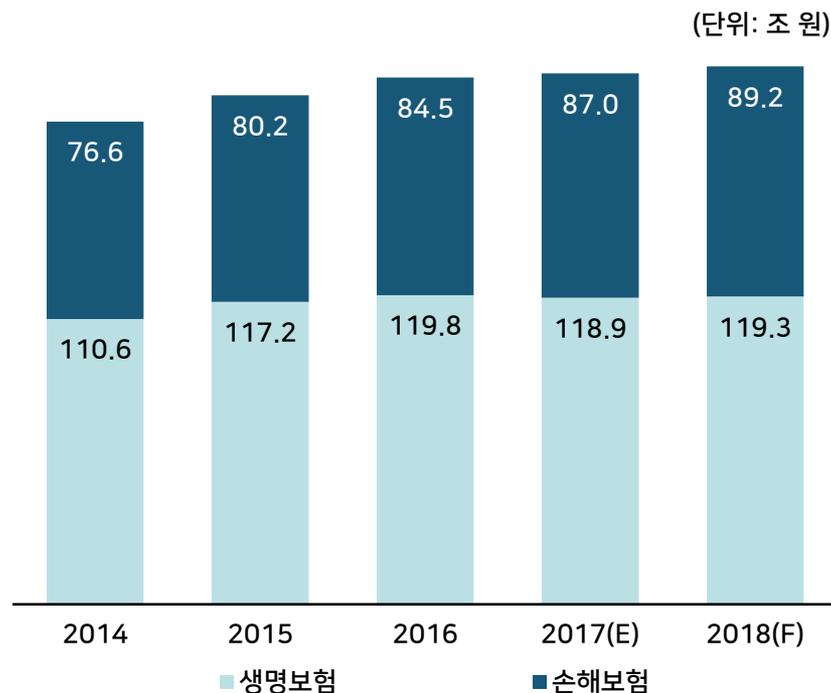
1) 수입보험료

- 저성장 지속과 시장포화, 제도적 요인으로 2017년 보험산업 보험료 증가율은 0.81%, 2018년 1.24%
 - 2017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0.7%, 손해보험 3.0%로 전년대비 성장세 둔화 전망
 - 2018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19.3조 원(0.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89.2조 원(2.5%)으로 전망됨
- 명목경제성장률은 2012년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세는 약화되고 있음

명목경제성장률과 보험료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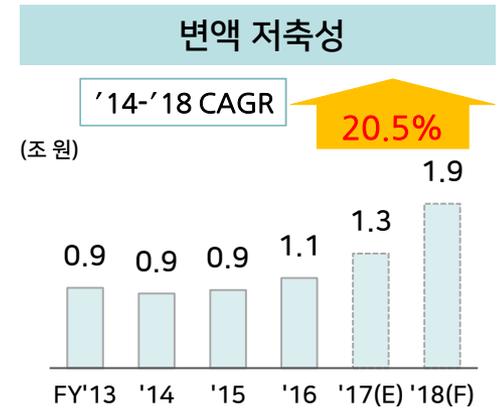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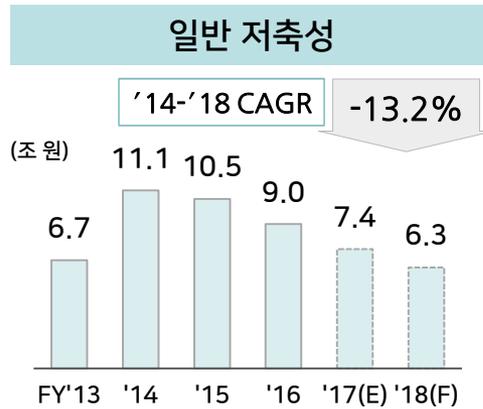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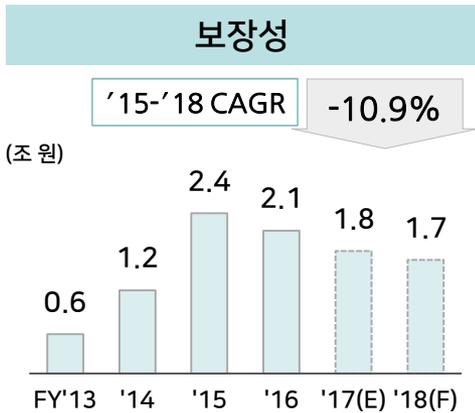
생명 및 손해보험 보험료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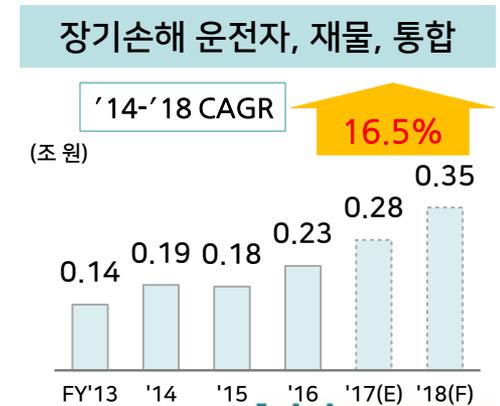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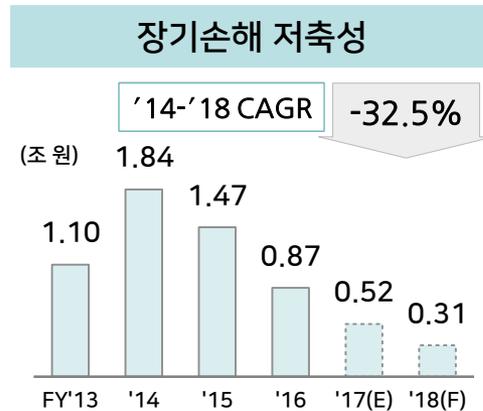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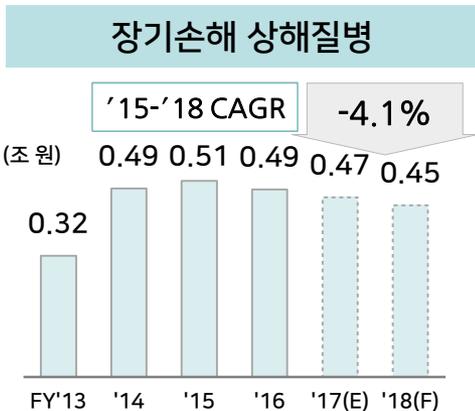
2) 초회보험료

- 생명보험의 변액저축성, 손해보험의 운전자, 재물, 통합보험을 제외한 초회보험료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됨
- 연평균 증가율은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10.9%, 장기손해 상해·질병 -4.1%, 생명보험 일반저축성 -13.2%, 손해보험 장기저축성 -32.5%

생명
보험



손해
보험



주: 1) 각 종목별 초회/계속 보험료 전망치는 [첨부] 종목별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참조
 2) 초회보험료는 1회차 보험료로 일시납 보험료와 비일시납 보험료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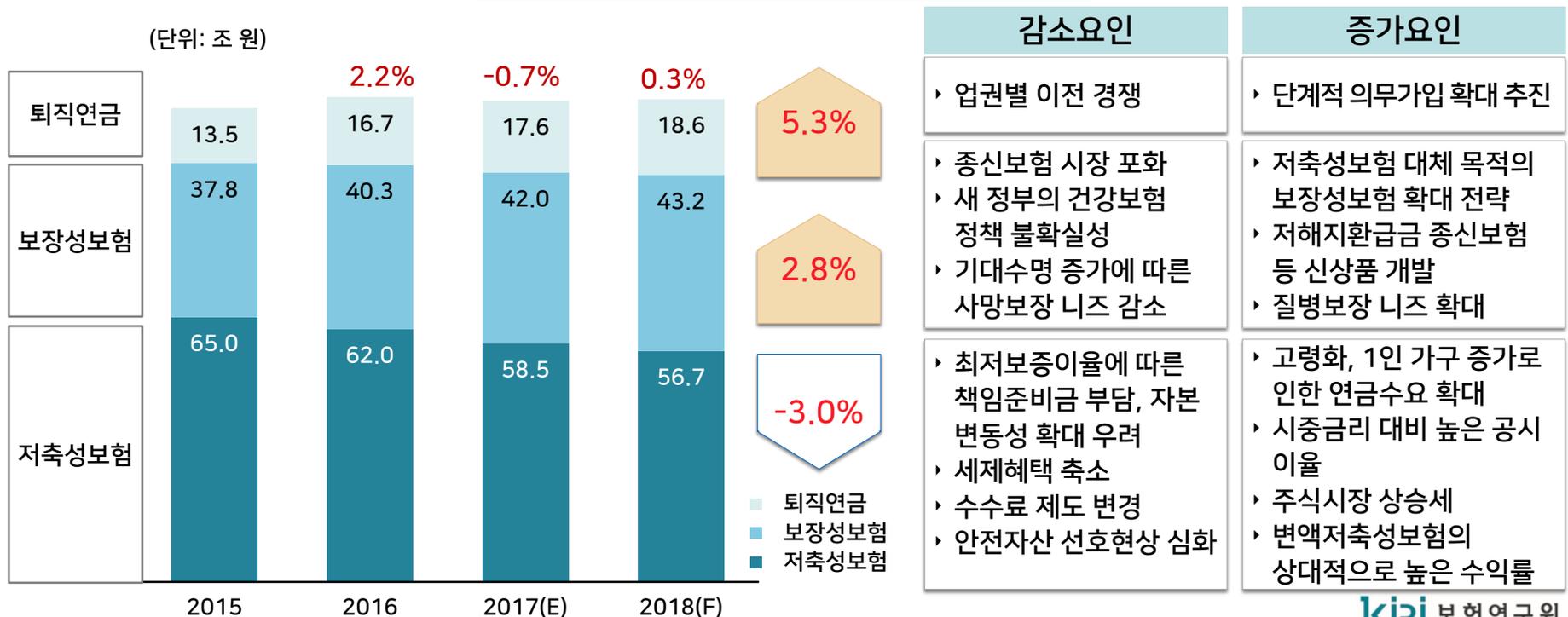
2. 생명보험

- 1) 보장성보험
- 2) 저축성보험
- 3) 성장전략

1) 보장성보험

- 보장성보험(2.8%)이 저축성보험의 감소세(-3.0%)를 보완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저축성보험 감소 원인은 IFRS17으로 인한 자본변동성 확대 우려, 세제혜택 축소, 수수료 제도 변경으로 인한 판매유인 약화 등임
- 시장의 성숙으로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015년 9.2%에서 2018년 2.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불확실성으로 둔화세는 확대될 전망

생명보험 종목별 성장률과 증감 요인



주: 붉은색 글자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각 종목별 초회/계속 보험료 전망치는 첨부 참조

2) 저축성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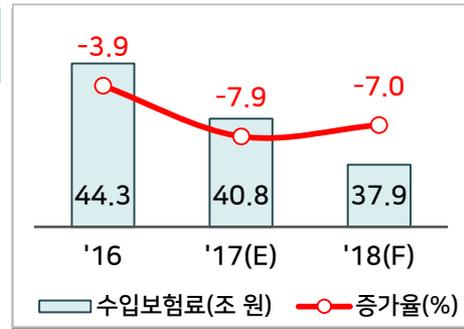
- 2018년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에 비해 7.0% 감소한 37.9조 원으로 전망
 - 2017년 7.9% 감소 원인인 세제혜택 축소, 수수료 체계변화, 부채부담 및 자본변동성 증가 우려가 지속되기 때문임
- 반면 2018년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6.2% 증가한 18.8조 원으로 예상됨

수입보험료 전망

증가요인

감소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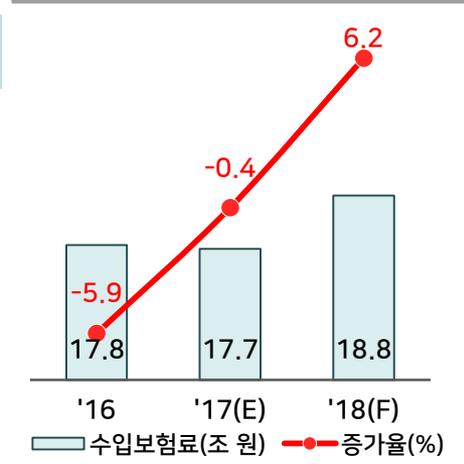
1 일반저축성보험



-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베이비 부머 은퇴 등으로 인한 연금수요 확대
- 시중금리 대비 높은 공시 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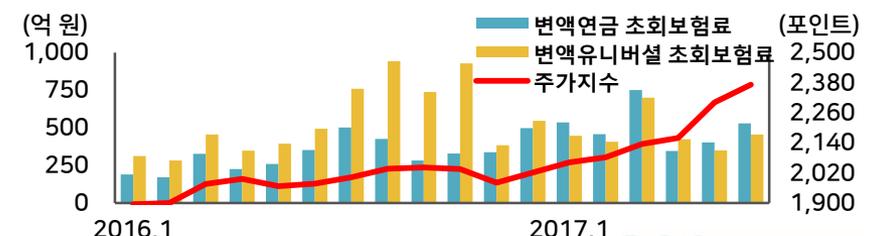
-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수요 위축
-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인한 판매유인 감소
- 부채 부담 및 자본 변동성

2 변액저축성보험



- 일반저축성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리 부담으로 인한 적극적 마케팅
- 주식시장 상승세로 초과 수익 기회

- 변액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북한 핵위험으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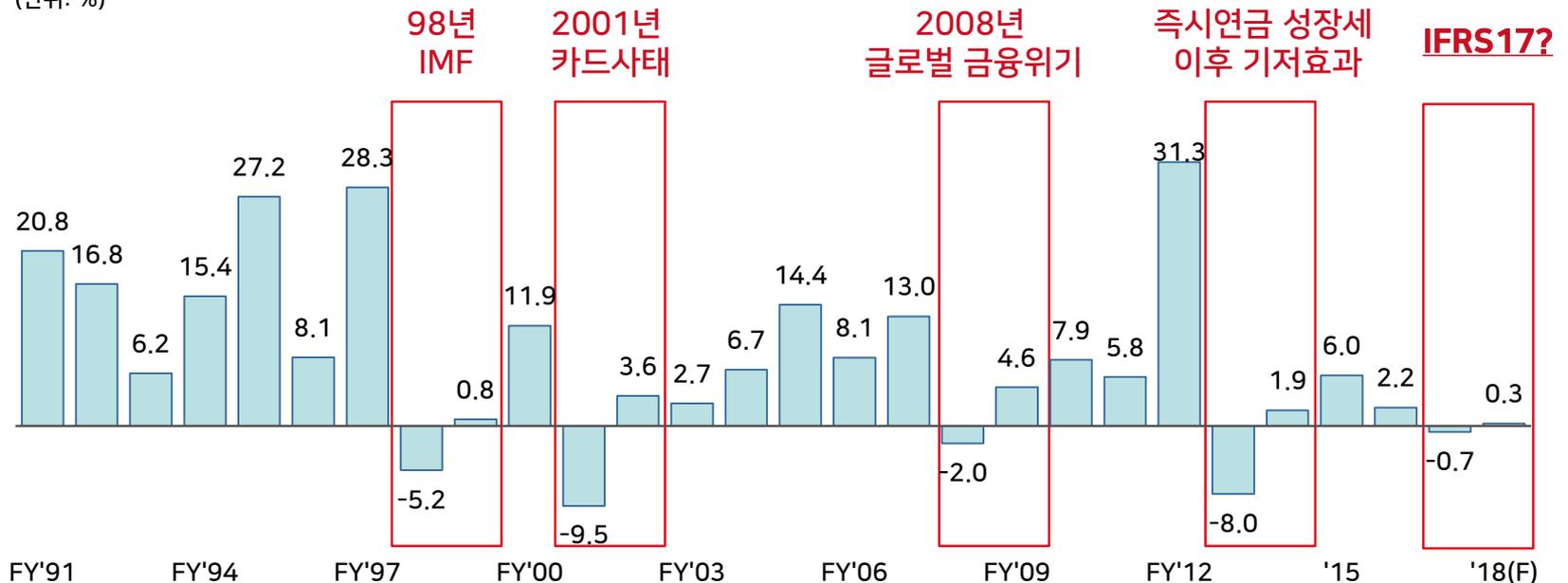


3) 성장전략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2017년 -0.7%)한 경우는 1998년(-5.2%), 2001년(-9.5%), 2008년(-2.0%), 2013년(-8.0%) 이후 다섯 번째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마이너스 성장한 다음 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하였으나 2018년에는 플러스 성장세가 미약할 것으로 전망됨. 신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함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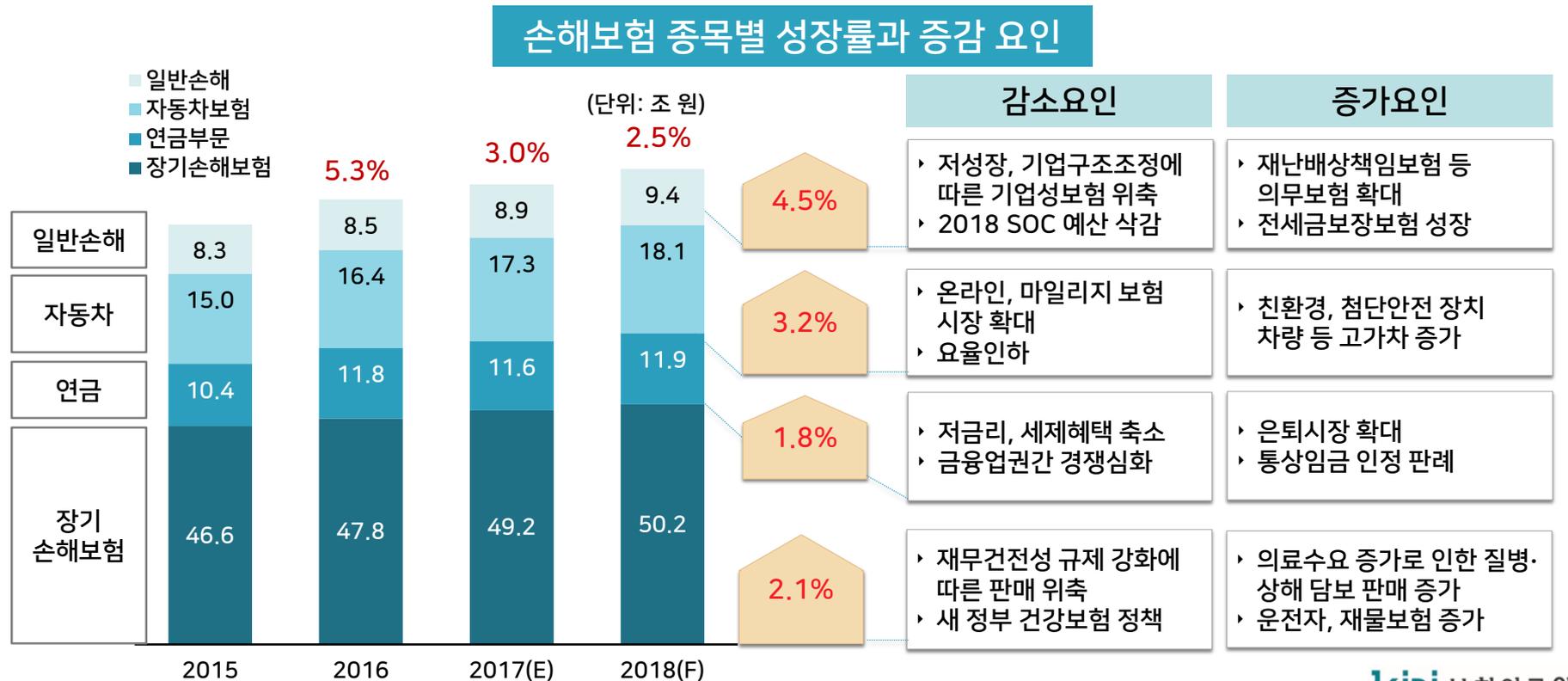


3. 손해보험

- 1) 개요
- 2) 보장성 장기손해보험
- 3) 저축성보험 / 개인연금
- 4) 자동차 / 일반손해보험

1) 개요

- 2017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연금부문 감소, 장기손해보험 성장세 둔화에도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로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질병·상해(5.6%), 운전자·재물·통합보험(6.4%) 중심의 장기손해보험(2.1%), 자동차보험(3.2%)과 일반손해보험(4.5%)의 성장세로 2.5%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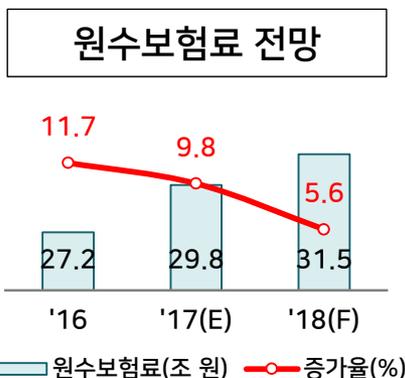


주: 붉은색 글자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각 종목별 초회/계속 보험료 전망치는 첨부 참조

2) 보장성 장기손해보험

- 질병·상해보험의 경우 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의 영향으로 증가율은 2017년 9.8%에 비해 둔화된 5.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운전자, 재물, 통합보험의 경우 자동차사고 분쟁 증가, 배상책임보험시장 확대 등으로 성장세 지속 전망

1 질병·상해



증가요인

- 의료비 부담 확대
-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증가
- 간편심사보험 시장 성장

감소요인

-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방향
- 높은 가입률 지속

2 운전자·재물·통합



- 교통사고 관련 분쟁 증가
-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법률비용 보장
- 재물보험의 경우 실손보상 상품증가, 배상책임보험 시장 확대 등으로 성장

- 경쟁심화
- 3~5년 만기도래 계약의 갱신 가입 여부의 불확실성
-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득 감소, 기업구조조정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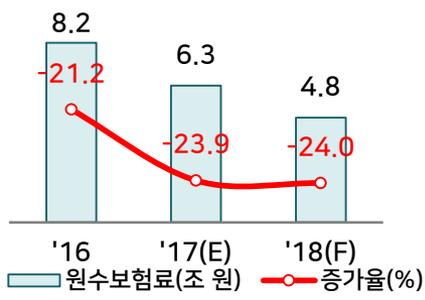
주: 붉은색 글자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각 종목별 초회/계속 보험료 전망치는 첨부 참조

3) 저축성보험 / 개인연금

- 저축성보험은 최저보증이율에 따른 금리리스크, 자본부담, 세제혜택축소로 인한 상품경쟁력 약화로 2017, 2018년 24%내외 감소 전망
- 개인연금은 저금리 장기화,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상품경쟁력 약화로 2017년 4.3%, 2018년 5.0% 감소할 전망

3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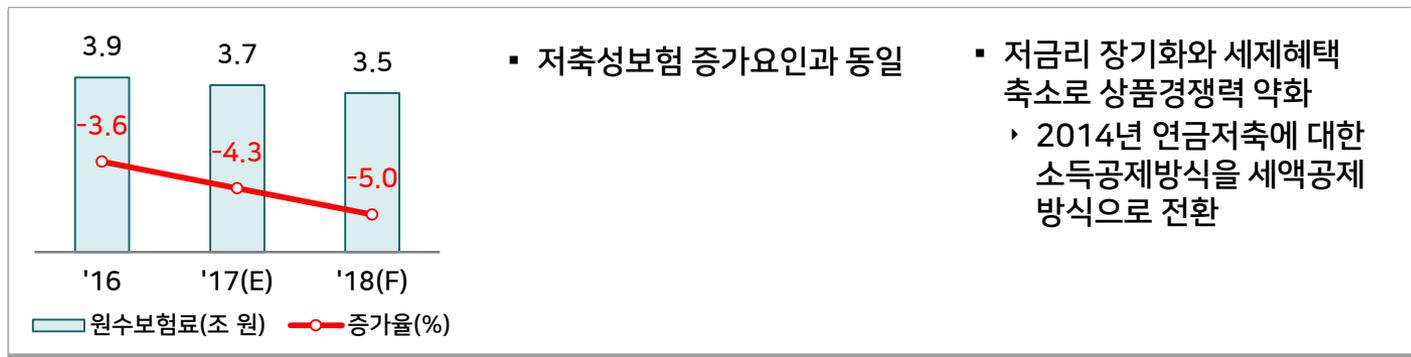
증가요인

- 금리상승으로 인한 공시 이율 상승
- 노후소득보장 수요

감소요인

- 가계소득 정체
- 세제혜택 축소
 - 이자소득 비과세요건 강화
 - 일시납 1억원, 월납 150만원
- 최저보증이율에 따른 금리 리스크 부담, 자본부담 확대

4 개인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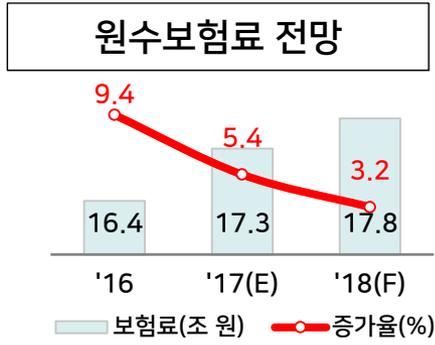
- 저축성보험 증가요인과 동일
- 저금리 장기화와 세제혜택 축소로 상품경쟁력 약화
 - 2014년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주: 붉은색 글자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각 종목별 초회/계속 보험료 전망치는 첨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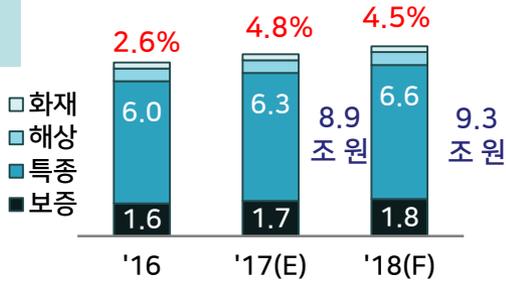
4) 자동차 / 일반손해보험

- 자동차보험은 효율인하 효과가 고가 차량 증가 효과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3.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손해보험은 특종, 해상보험이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감소, 효율인하 등으로 2018년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4.5%증가한 9.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1 자동차보험



2 일반손해보험



증가율 전망 (%)	'16	'17(E)	'18(F)
화재	-1.0	-1.5	-2.0
해상	-14.3	2.0	2.0
특종	5.4	4.5	4.7
보증	0.6	8.0	5.4

증가요인

- 친환경차, 수입차, 첨단 안전장치차, 캠핑카 등 고액 자동차 증가
- 대물 가입금액, 자차담보 가입 확대
- 선박 제외 해상, 보증, 책임보험, 상해보험의 성장
- 재난배상책임보험('17.7) 등 의무보험 확대
- 전세금보증보험 가입 증가('17.6 이후)

감소요인

- 효율인하
-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 증가 등으로 자동차사고 감소
-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득감소, 기업구조조정 지속
- 효율 인하
- 2018년 SOC 정부예산 삭감(-20%)으로 건설투자 감소, 이행보증 감소

주: 붉은색 글자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각 종목별 초회/계속 보험료 전망치는 첨부 참조

4. 보험권 퇴직연금

- IRP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수요, 베이비부머 은퇴시장 확대, 대기업 통상임금 인정 판례로 인한 퇴직금 증가 효과 등으로 퇴직연금 시장은 생·손보 모두에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퇴직연금은 생명보험 5.3%(18.6조 원), 손해보험 5.0%(8.3조 원)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생명보험

- IRP 가입대상 확대
- 베이비부머 은퇴시장 확대
- 대기업 통상임금 인정 판례로 인한 퇴직보험료 증가

- 퇴직연금 신규가입 정체
- 업권별 이전 경쟁으로 보유계약 이탈 가능성

증가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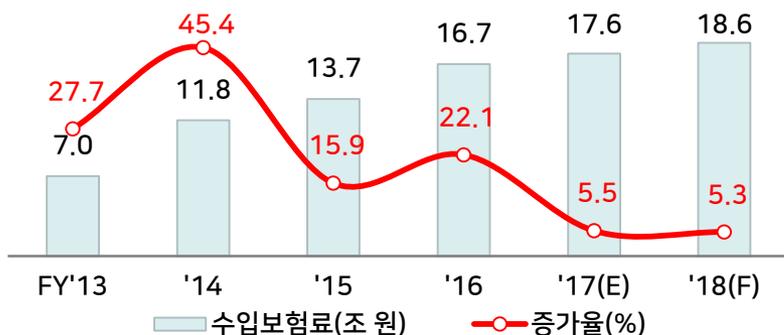
감소요인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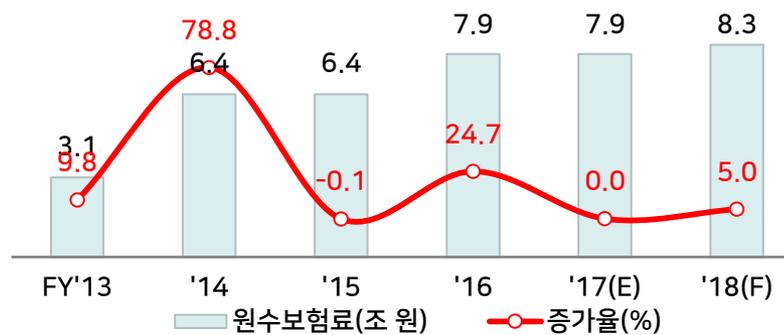
- IRP 가입대상 확대
- 베이비부머 은퇴시장 확대
- 대기업 통상임금 인정 판례로 인한 퇴직보험료 증가

- 자본부담으로 인한 보험회사들의 소극적인 판매전략
- 타금융권 실적배당형 DC형 시장 확대에 따른 경쟁

생명보험 퇴직연금 전망



손해보험 퇴직연금 전망



주: 붉은색 글자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각 종목별 초회/계속 보험료 전망치는 첨부 참조

5. 요약

- 명목경제성장률은 2016년 이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시장의 높은 성숙도로 보험산업의 성장세는 둔화될 전망
- 경제환경 변화와 더불어 회계제도 변화, 세제 및 수수료 체계 변화로 인한 저축성보험 감소세 심화가 보험산업 성장세를 제한
- 금리상승은 보험회사 건전성 저하, 가계의 부채부담 확대 및 취약계층 증가로 인한 위험보장 공백 확대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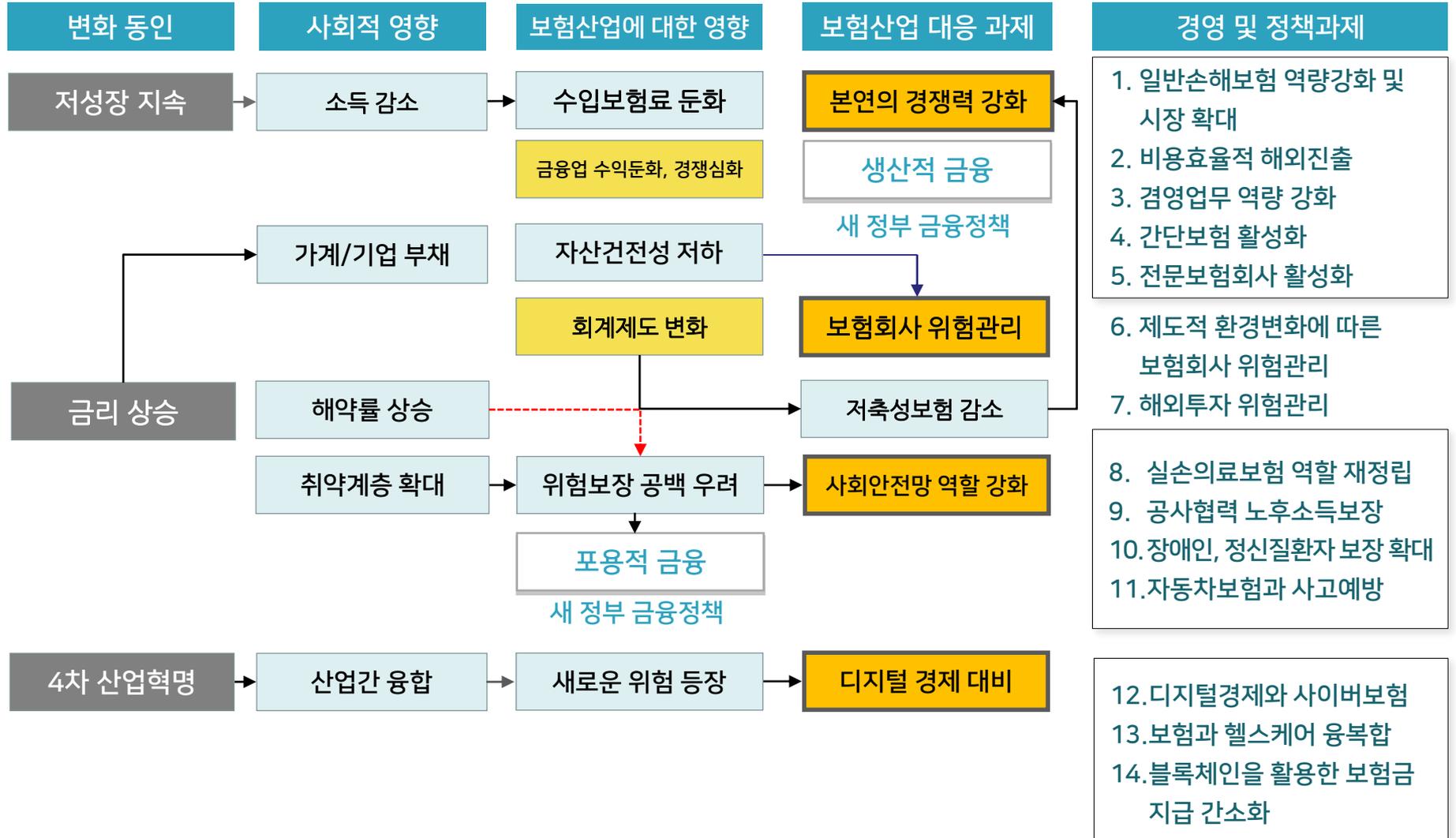
(단위: %, 조 원)

		2015	2016	2017(E)	2018(F)
경제성장률		2.8	2.8	2.8	2.7
명목경제성장률		5.3	4.7	5.4	5.1
금리(국고채 3년물)		1.8	1.4	1.8	1.9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18.3	15.5	14.2	13.7
	수입보험료 (증가율)	117.2 (6.0)	119.8 (2.2)	118.9 (-0.7)	119.3 (0.3)
손해보험	초회보험료(장기)	3.6	3.5	3.1	2.9
	원수보험료 (증가율)	80.2 (4.8)	84.5 (5.3)	87.0 (3.0)	89.2 (2.5)

IV. 경영 및 정책과제

1.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2. 금융정책 방향
3. 세부과제
 - 1) 본연의 경쟁력 강화
 - 2) 보험회사 위험관리
 - 3)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 4)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대비

1.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2. 금융정책 방향

• 새 정부의 금융정책은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과 금융업 본연의 역량 집중을 강조하고 있음



3. 세부 과제

- 1) 본연의 경쟁력 강화
- 2) 보험회사 위험관리
- 3)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 4)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대비

1) 본연의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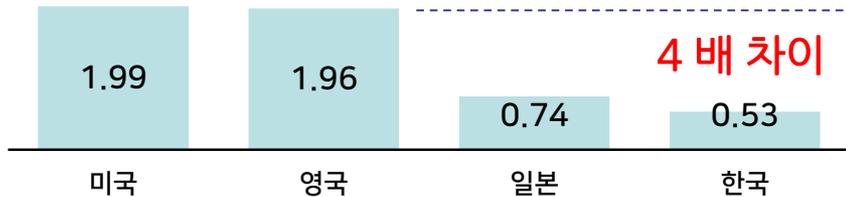
- ① 일반손해보험 역량강화 및 시장 확대
- ② 비용효율적 해외 진출
- ③ 겸영업무 활성화_변액보험과 자산관리 서비스 역량강화
- ④ 간단보험 활성화
- ⑤ 전문보험회사 활성화

① 일반손해보험 역량강화 및 시장 확대

- 손해보험의 성장세 둔화 극복을 위해 성장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일반손해보험의 시장확대 및 역량강화 필요
- 가계성 일반손해보험, 기업성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일반손해보험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도, 관행, 경영전략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모색. 국내시장 확대와 더불어 해외수재 확대도 추진해야 함

주요국 일반손해보험 침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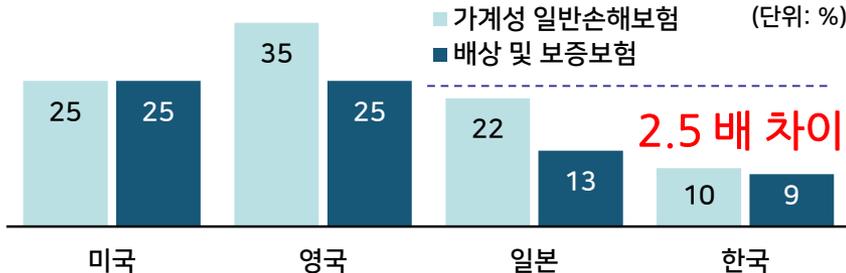
(단위: %)



주: 2015년 기준, 침투도는 각국의 GDP대비 원수보험료

일반손해보험 대비 상품별 비중

(단위: %)



주: 2015년 기준,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은 주택종합, 상해, 여행자보험 등임

국내시장 확대 및 역량강화와 해외사업

국내시장 확대
가능 상품

- 가계성 일반손해보험 (주택종합, 상해, 여행자보험 등)
- 기업성 배상책임보험
- 재난보험
- EW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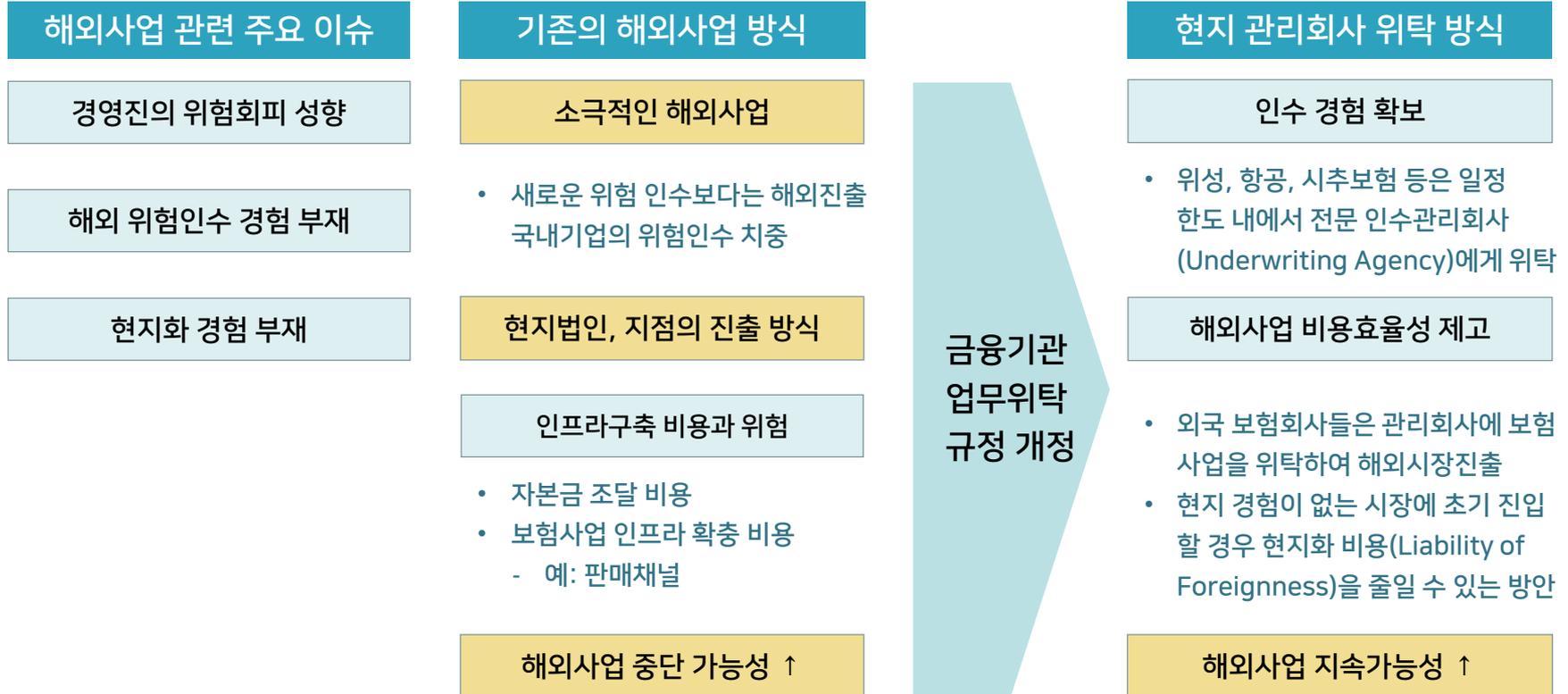
시장 확대
전략 추진시
고려사항

- 역량 강화와 시장 확대 저해 가능한 다양한 요인 병존 가능
 - 제도, 관행, 소비자 인식, 보험상품, 보험회사 경영 방침 등을 고려

국내시장 확대와 더불어 해외수재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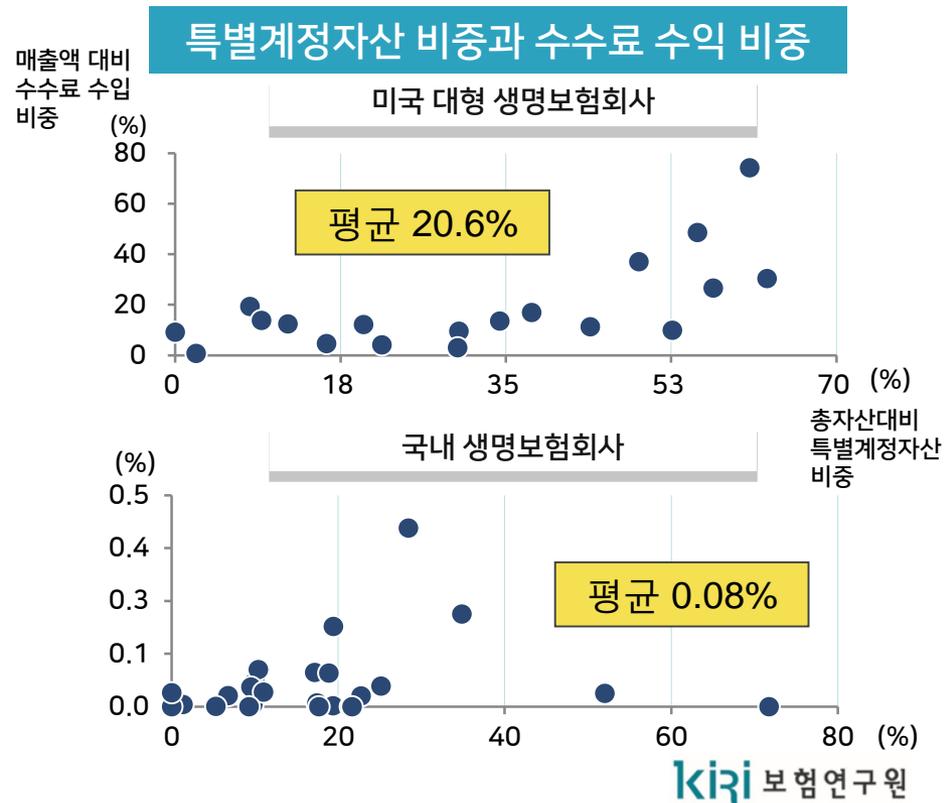
② 비용효율적 해외 진출

- 성장성,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사업 활성화가 필요. 기존의 해외사업 방식의 문제점인 인프라 구축 비용과 이로 인한 실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현지 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업무위탁은 인수경험을 확보하고 비용효율성 제고를 통해 해외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③ 경영업무 활성화_변액보험과 자산관리 서비스 역량 강화

- 자본금 규모가 큰 대형 보험회사들은 변액연금, 변액보험, 연금에서 축적된 고객의 자산을 보험회사가 직접 운용 및 관리하는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
- 미국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연금자산의 자체적 운용을 통해 고객의 노후소득 보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국내 보험회사들은 수익창출이 미미한 상황임



④ 간단보험 활성화

-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위험보장 공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생활에 밀접하고 위험보장 단위당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간단한 보험상품의 공급 활성화가 필요함
- 현재 걸림돌인 수수료, 판매절차, 규모의 경제 문제를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채널 활용, 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간단보험 전문보험회사 진입 허용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⑤ 전문보험회사 활성화

- 간단보험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보험회사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 보험사업의 주요 기능을 인슈어테크를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위탁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판매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보험회사의 등장이 용이해질 것임
- 전문보험회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진입규제를 완화 필요
 - 회사의 규모에 따라 규제를 다변화하여 전문보험회사 출현과 생존가능성 제고

주요국의 최소자본금 요건 비교

구분	한국	미국(뉴욕주)	독일	일본
요건	자본금, 기금	자본금, 기금, 공탁	최저보증기금	자본금, 기금
주식회사	최소 300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보: 자본금 200만 달러, 잉여금 400만 달러 또는 자본금의 200% 중 더 큰 금액 • 손보: 자본금 1,160만 달러, 잉여금 630만 달러, 7-17종목 영위 시 50만 달러 공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보: 300만 유로 • 손보: 300만 유로 	10억 엔 이상
상호회사	주식회사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보: 자본금 65만 달러, 잉여금 20만 달러 • 손보: 자본금 935만 달러, 잉여금 600만 달러 	주식회사의 1/4	10억 엔 이상

주: 각 국가별 자본금은 전 종목을 전부 취급한 것을 가정함

자료: 이기형 외(201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참조

2) 보험회사 위험관리

- ① 제도적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위험관리 역량 제고
- ② 해외투자 위험관리

① 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위험관리 역량 제고

- 새로운 회계제도(IFRS 9 및 17) 및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보험회사의 전면적인 경영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제도적 환경 변화

1 IFRS 17

- 부채시가평가로 인한 보험부채 및 자본변동성 증가

2 IFRS 9

- FVPL 자산 비중 증가로 손익변동성 확대
-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상 인식으로 시장 부도율 상승 시 대손상각비 급증

3 K-ICS

- 자산, 부채 시가평가에 기반함에 따라 가용자본 감소
- 신규리스크 추가, 현금흐름을 반영한 충격시나리오 적용, 신뢰수준 상향 등에 따라 요구자본 증가

경영 패러다임 전환: 장기적, 기업가치 중심

1 손익관리

- 장래이익, 이익원천, 예정과 실제의 차이 등의 정보가 외부 공시됨에 따라 정교한 손익관리 체계 구축 필수

2 자본관리

- 자본감소 및 자본변동성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자본확충 계획,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한 전략 필요

3 리스크관리

- 측정해야 할 리스크 종류가 다양해지고, 리스크관리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리스크 통합 관리 시스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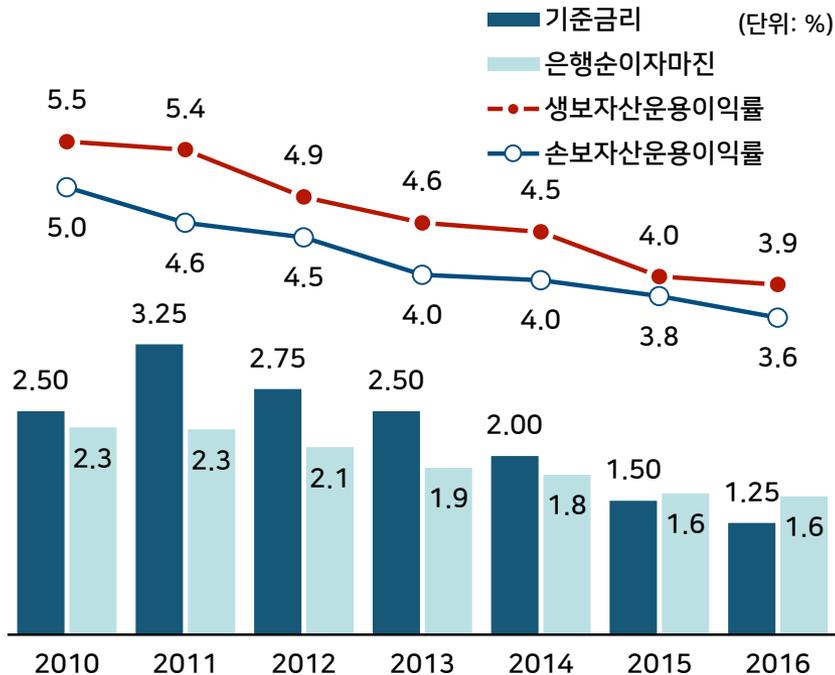
4 인력 양성 및 시스템 구축

-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요 인력 교육과 양성에 주력하고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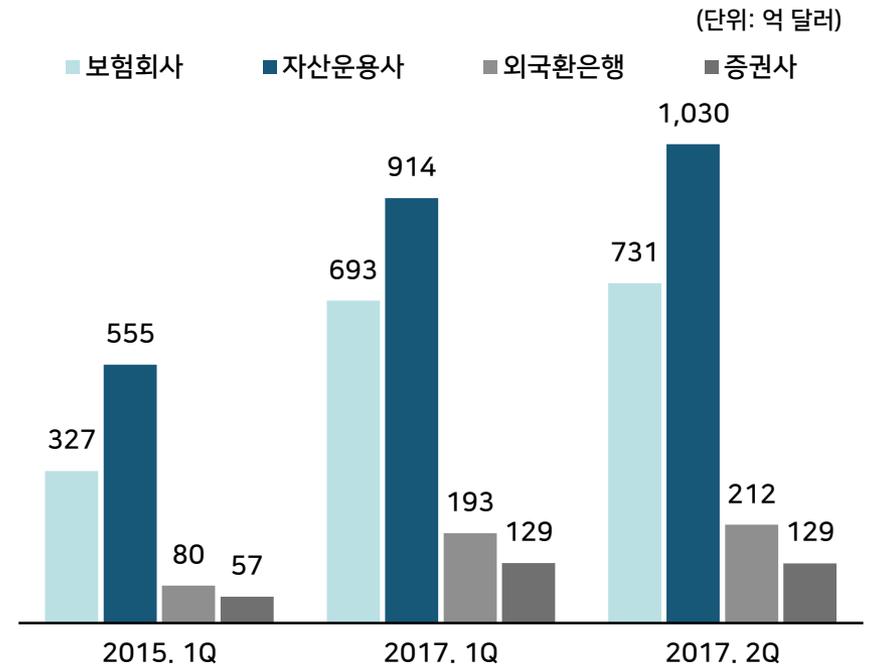
② 해외투자 위험관리

-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의 해외투자가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외채권 투자과정에서 금리변동과 환율 변동위험 관리 전략은 전사적인 자산부채관리 전략과 일치할 필요

금융산업 운영이익률



금융산업 해외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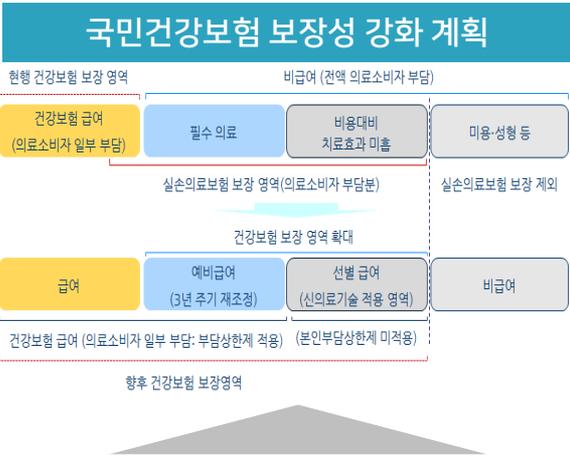


3)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 ① 실손의료보험 역할 재정립
- ② 공사협력 노후소득 보장
- ③ 장애인, 정신질환자 보장 확대
- ④ 자동차보험과 사고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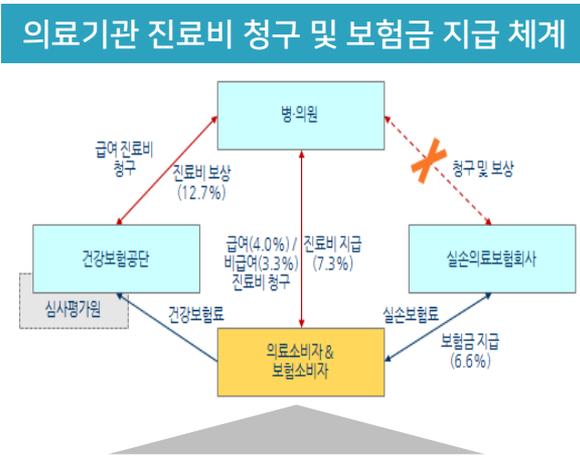
① 실손의료보험 역할 재정립

-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공보험의 보완형으로서 실손의료보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됨
 -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신속한 제도 개선 필요
 -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심사체계 합리화 및 보험업계 통계 정비
 - 실손의료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고령자·유병자 가입 확대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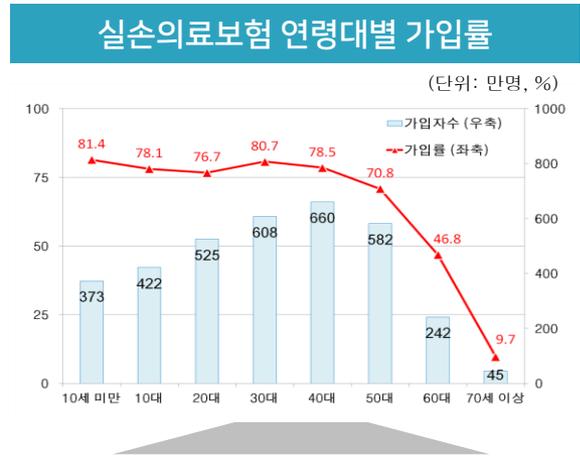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개편

- 보장성 강화 정책 실행 효과의 보험료 반영
- 급여/예비급여 확대 연계한 보장구조 개편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 진료비 세부내역서 양식 표준화 및 의료기관 의무 사용화
- 비급여 진료비 외부 심사기관 지정 및 심사기준 마련
- 실손보험 청구·지급통계 정비 및 비급여 통계 기준 마련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 노후실손의료보험 보장구조 개편 및 가입심사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 유병자 전용 실손의료보험 개발

② 공사협력 노후소득 보장

- 2017년 7월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도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고 퇴직연금 의무화가 지속적으로 논의 중
- 재정문제를 고려할 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

퇴직연금 가입 확대 등 연금시장 환경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7.26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 모든 경활자에 대한 퇴직연금(IRP) 가입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731만 명의 추가 가입 가능 • 퇴직연금 의무화*는 고용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재정문제와 연금시장 환경 고려한 공사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재정의한계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지출: 장기적으로 GDP대비 20%상회(현재 10%수준) * 국민연금: 기금 소진 2060년,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 40% • 퇴직연금가입 활성화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사후조치(세제지원 등) 등 공사협력 강화

퇴직연금 가입대상자 확대

확대 전	확대 후(추가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일시)금 수급 퇴직근로자 ▪ 퇴직연금제도* 가입 재직근로자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 ▪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공사협력 방안

공적연금	사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안정화 및 기본적 소득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의 사각지대 해소(납부예외율 55%) * 소득대체율(현 25%~30%) 40%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내실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사후 조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퇴직직전세대 등을 대상으로 세제혜택 강화(예, 50대 대상 catch-up policy(미국) 도입) ▪ 연금형태의 수령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금 수령 시 과세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재원확보분을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으로 전환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7.4.11)

③ 장애인, 정신질환자 보장 확대

- 고령층 보험수요가 커짐에 따라 유병자 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위험보장 노력 필요
- 정신 질환자에 대한 보험 접근성 제고 및 정신질환 보장상품의 공급을 위해서는 정신질환 관련 통계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장애인 보장 확대를 위한 경영과제

- 현재 공급중인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을 보다 적극 홍보
- 장애인 기초요율 개발로 보다 적극적인 상품개발 환경 조성
- 장애인 사고통계 구축을 위한 공사협력체계 구축

장애인 보장 확대 시 고려사항

-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른 장애인 인수심사 근거 마련

정신질환보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

경증 정신질환
인수기준 마련

- 국민통계 활용
- 의학계, 보험업계, 정부부처간 협의체구성

경증 정신질환
보장상품 개발

- 역선택,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 정액형 상품 위주 운영

경험통계 구축

- 질환별 세분화 정보 구축
- 의료 이용량 분석 등 계약자 행동 분석

상품 다양화

- 보장질환 범위 확대
- 실손형 상품 운영 검토

④ 자동차보험과 사고예방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음주운전 등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 강화를 통해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임
- 사고예방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근절될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최대 3.4%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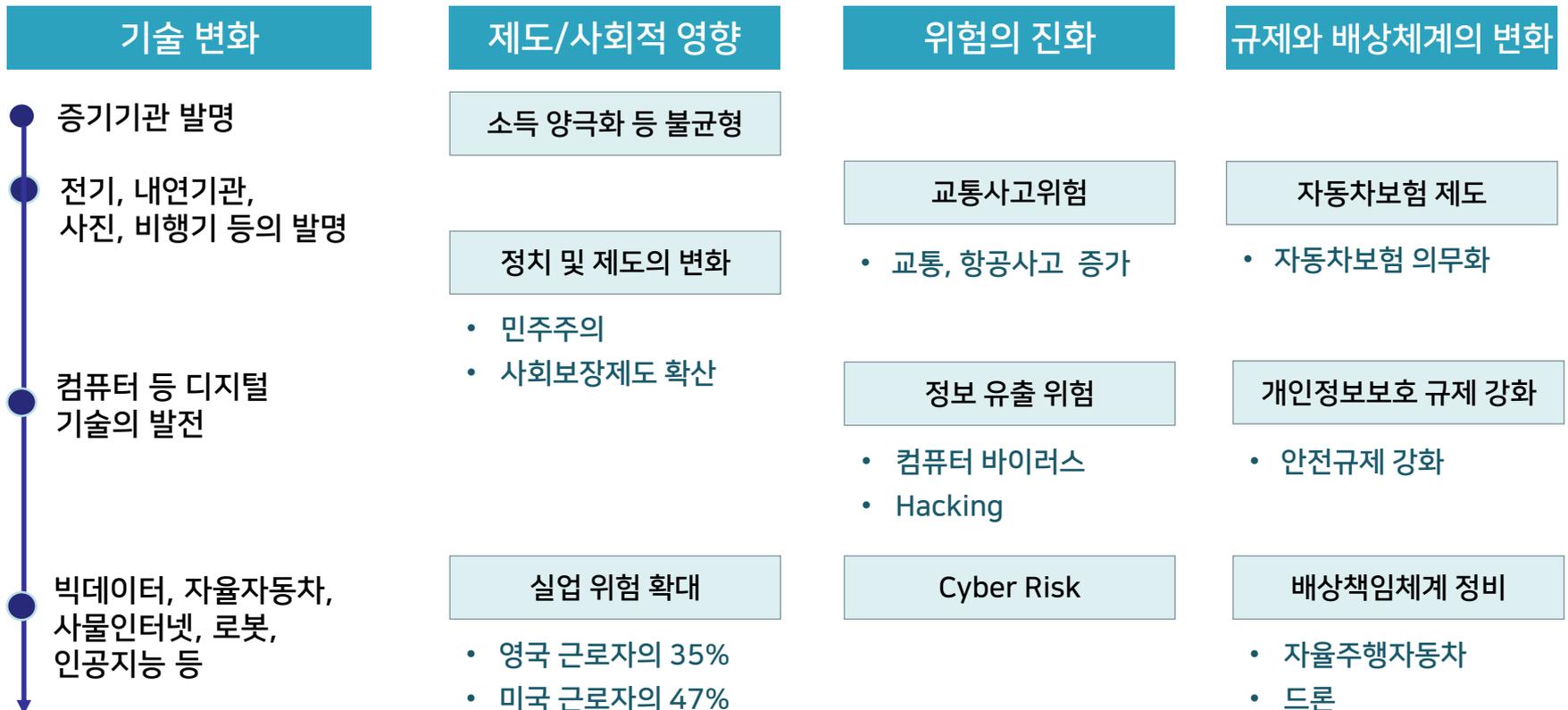
	현행	제도개선 방안	기대효과
<p>사고부담금 확대 강화 (자배법 29조, 시행규칙 1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도입 • 대인사고 1건 당 300만 원, 대물사고 1건 당 100만 원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무면허 운전 가해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일부(20%)를 부담 	<p>안전운전 유도</p> <p>사고 예방</p>
<p>치료관계비 전액 지급 (자배법 10조, 시행령 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보험자가 치료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 뺑소니, 무면허 운전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지급하는 치료비의 일부를 가해자 본인이 부담(최대 50%) 	<p>형평성 제고</p> <p>음주운전 교통사고 억제</p>

4)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대비

- ① 디지털 경제와 사이버 보험
- ② 보험과 헬스케어 융복합_건강나이를 고려한 상품 개발
- ③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험금 지급 간소화

① 디지털 경제와 사이버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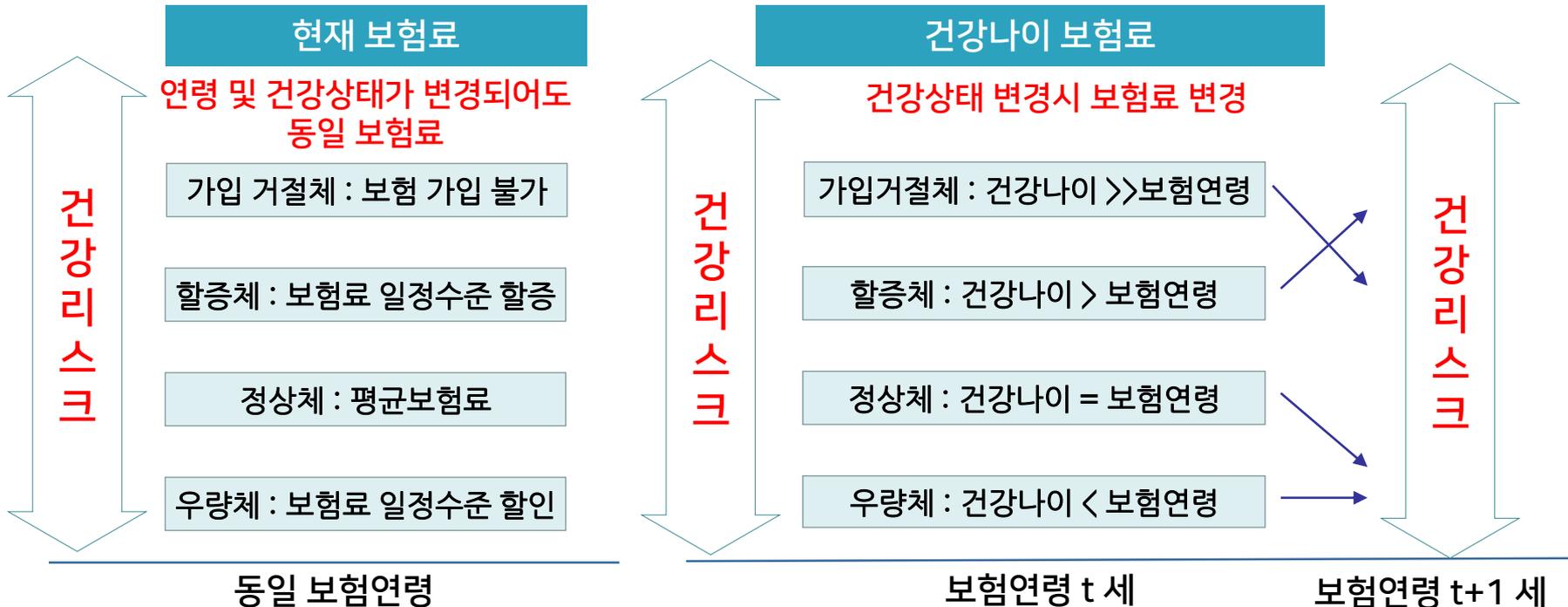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는 산업의 생산성, 편의성, 효율성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뿐 아니라 실업 증가, 이로 인한 소득 양극화 등 잠재적인 폐해도 초래할 것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산업의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사이버 리스크 등 새로운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역량 배양 필요



자료: World Economic Forum (2016)

② 보험과 헬스케어 융복합_건강나이를 고려한 상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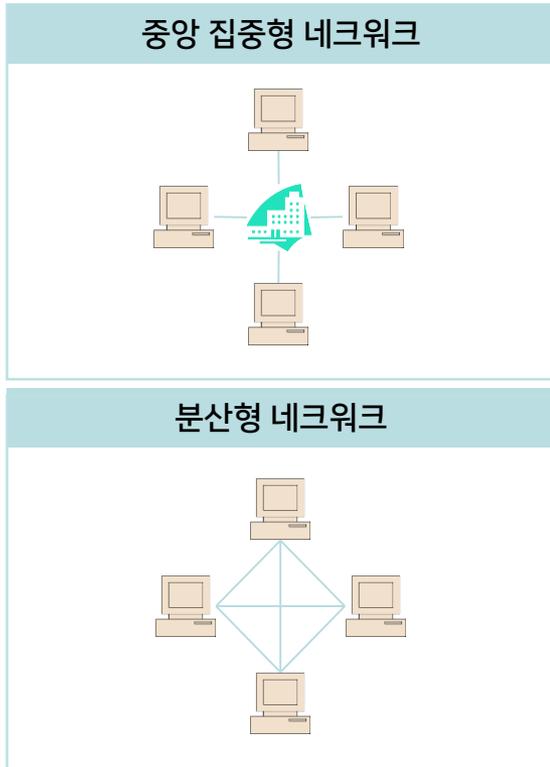
- 현재 건강상태의 변화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헬스케어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계약자의 건강리스크를 반영하는 건강나이 기준으로 보험료 산출
 - 우량체/할증체/간편심사보험 대체 예상
 - 건강 문제로 인한 보험가입 거절이 사라짐
 - 매년 건강나이 측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민 건강 개선 효과 기대



※ 보험료 할인/할증 수준이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

③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험금 지급 간소화(1/2)

-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이라고도 함
- 중앙에서 통제되는 일반적인 시스템과 달리, 분산화된 공개 거래장부로 특정 주체에 의한 통제와 위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호신뢰성, 투명성, 안정성이 기존 중앙집중형 네트워크에 비해 우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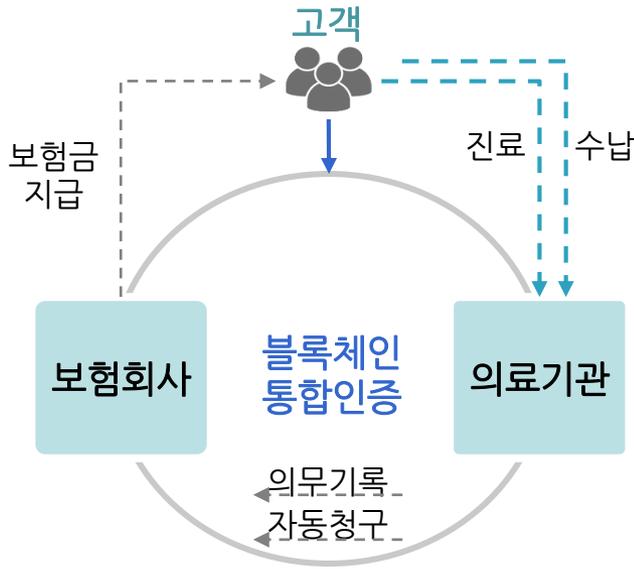
블록체인의 장점	
상호 신뢰성	• 정보의 위변조가 불가능하여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됨
투명성	•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함
안정성	• 일부 참여자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도 전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스마트 계약*	• 내재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스마트 계약 설계가 가능함 (2세대 블록체인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 사전에 결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

③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험금 지급 간소화(2/2)

- 표준화된 보험계약의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

교보생명의 보험금 지급체계 구축 방안



진료비가 소액인 경우 보험회사로 의무기록 제출과 보험금 청구가 자동으로 이루어짐

자료: 교보생명

<p>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복잡한 서류 및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계약자의 편리성과 보험회사의 효율성이 개선됨
<p>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금 지급심사는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므로, 완전한 스마트계약이라 보기 어려움 이는 비급여 항목의 비표준화가 원인으로 보임 보험금 지급 간소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p>확대 방안 및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사망보험 및 재해장해 보장과 같이 표준화된 보험계약의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블록체인화하여 보험회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음 보험금 중복 청구, 과다 진료 및 보험사기 관련 징후를 조기에 확인 가능함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 심사 차이로 인한 민원이 감소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첨부] 종목별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1. 생명보험
 - 1) 수입보험료 전망
 - 2) 수입보험료 추이
 - 3) 종목별 전망
2. 손해보험
 - 1) 원수보험료 전망
 - 2) 종목별 전망

1)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2017(E)		2018(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전체	117.2	6.0	119.8	2.2	118.9	-0.7	119.3	0.3
(퇴직연금 제외 시)	103.5	4.8	103.1	-0.4	101.3	-1.8	100.7	-0.6
보장성보험	37.8	9.2	40.3	6.6	42.0	4.4	43.2	2.8
저축성보험	65.0	2.6	62.0	-4.5	58.5	-5.8	56.7	-3.0
일반저축성보험	46.1	4.5	44.3	-3.9	40.8	-7.9	37.9	-7.0
변액저축성보험	18.9	-1.8	17.8	-5.9	17.7	-0.4	18.8	6.2
퇴직연금	13.7	15.9	16.7	22.1	17.6	5.5	18.6	5.3
기타	0.8	-5.1	0.8	-1.5	0.8	0.3	0.8	-0.8

주가지수 상승 그러나...



IFRS17과 K-ICS의 영향

- IFRS 17 도입 시 장기 저축성보험은 자본변동성 확대를 야기
- 저축성보험의 최저보증이율에 대한 준비금 부담
- K-ICS에 장수리스크 추가 시 요구자본 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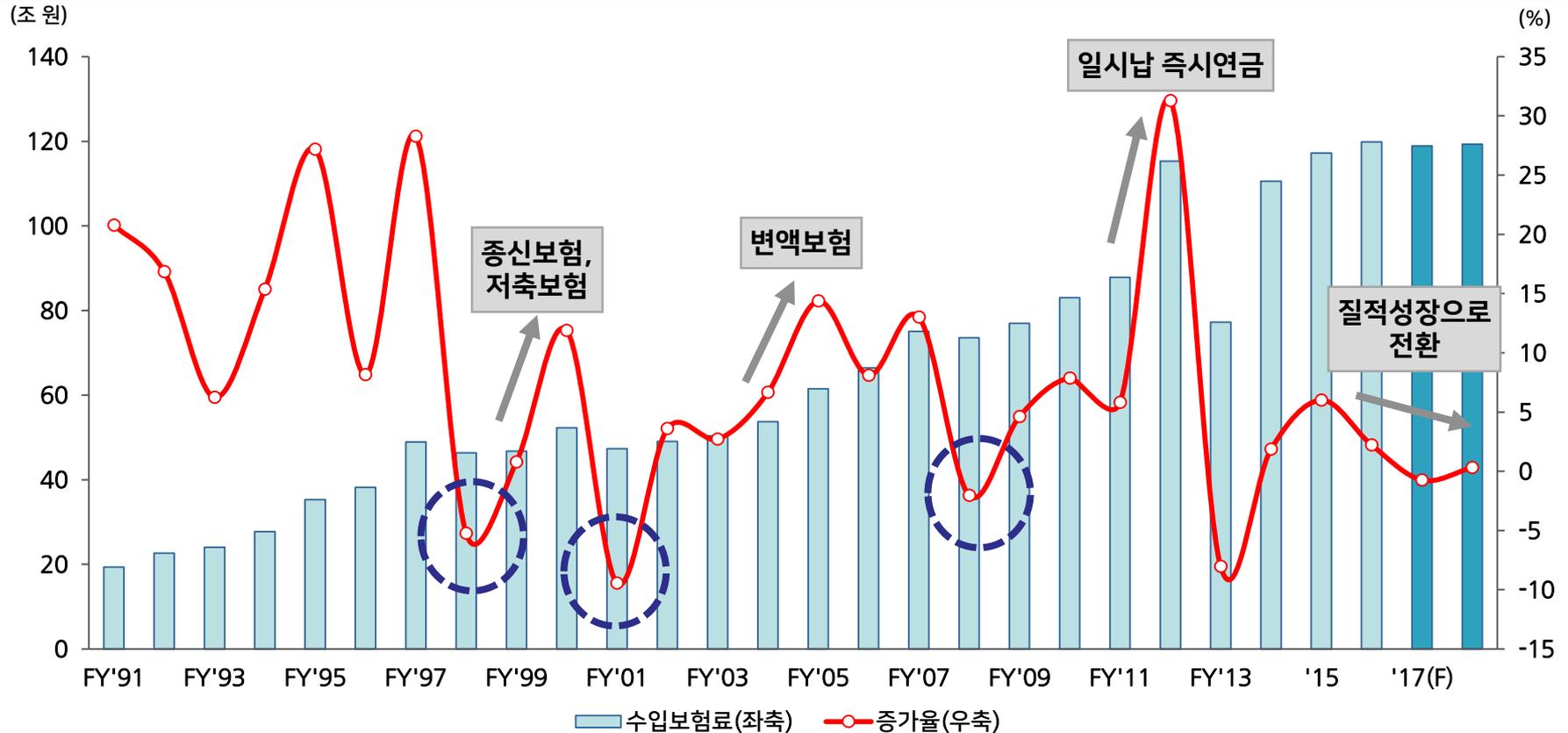
세제혜택 축소, 설계사 수수료 하락

- 세제혜택 축소
 - : 이자소득 비과세요건이 일시납 1억 원, 월납 150만 원으로 변경
- 저축성보험 수수료제도 변경
 - : 시중금리가 인하하면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인하여 가입자의 납입완료 시점(7년납 이상은 7년 시점)에 환급률이 100%가 되도록 설계

2) 수입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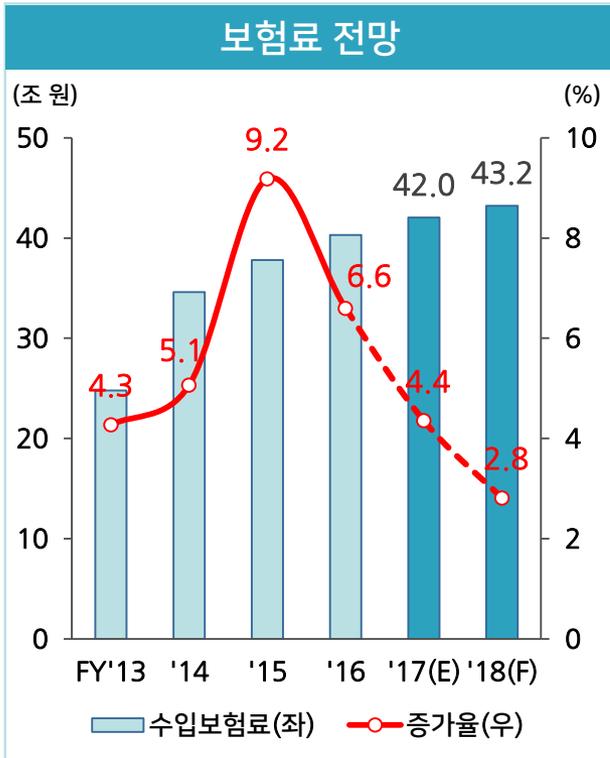
- 생명보험산업은 과거 종신보험 및 저축보험, 변액보험 등 신상품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유지해옴
- 신상품 판매를 통한 양적 성장에서 수익성 위주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

수입보험료 과거 추이와 전망



① 보장성보험

- 2018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2.8% 증가한 43.2조 원 전망
 - IFRS 17, K-ICS 대비 수익성 개선을 위한 보장성 상품 판매 확대
 - 신(新) 종신보험 상품의 신규 수요 창출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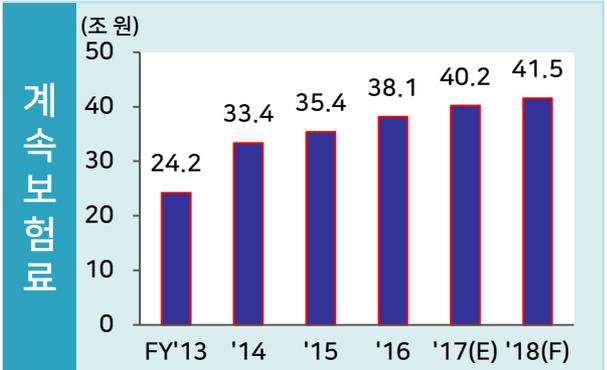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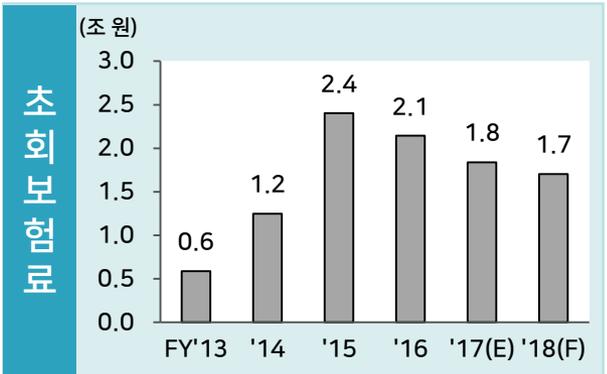


▲ 증가 요인

- 제도변화에 따른 보장성보험 확대 전략
- 저해지 환급금 종신보험 등 신상품 개발
- 고령화에 따른 질병보장 니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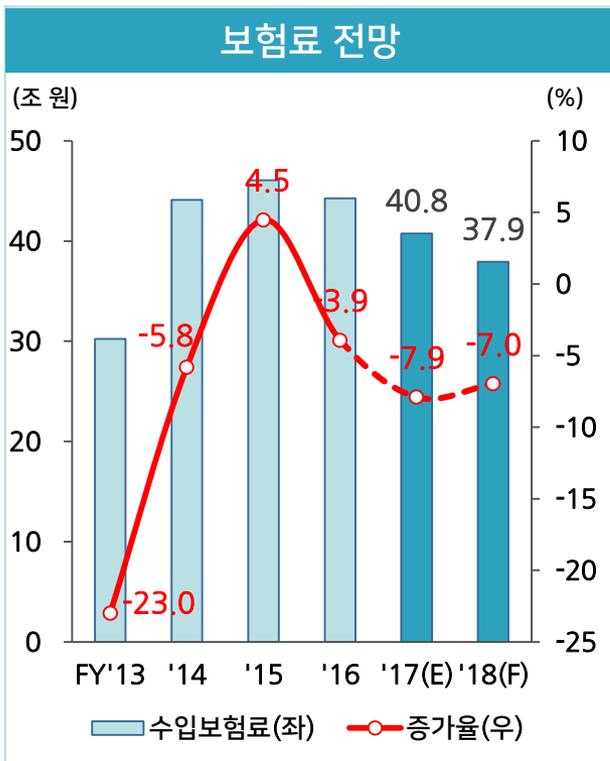
▼ 감소 요인

- 종신보험 시장 포화
-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사망보장 니즈 축소
-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수요 불확실성



가. 일반저축성보험

- 2018년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7.0% 감소한 37.9조 원 전망
 - 수수료 체계 변화에 따른 판매 유인 감소
 - 세제혜택 축소에 따른 수요 둔화 예상
 -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판매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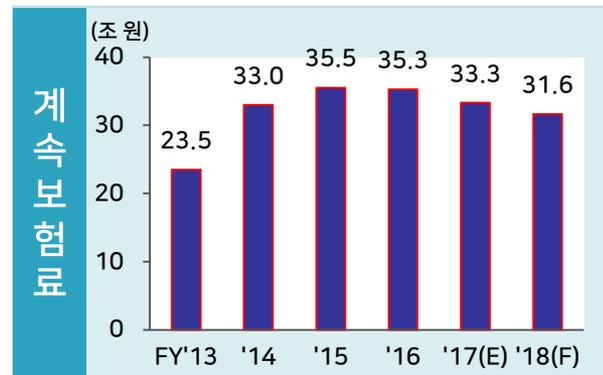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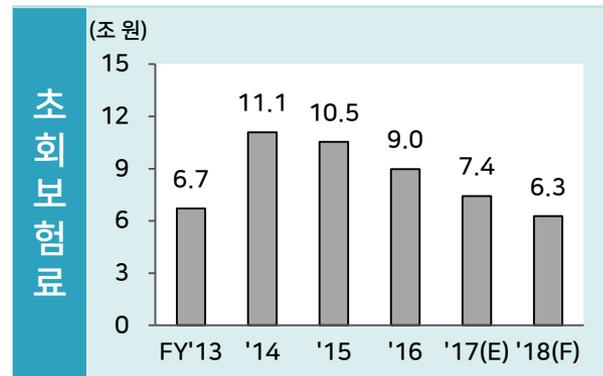


▲ 증가 요인

-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연금수요 확대
- 베이비부머 대규모 은퇴에 따른 연금보험 수요 확대
- 시중금리 대비 높은 공시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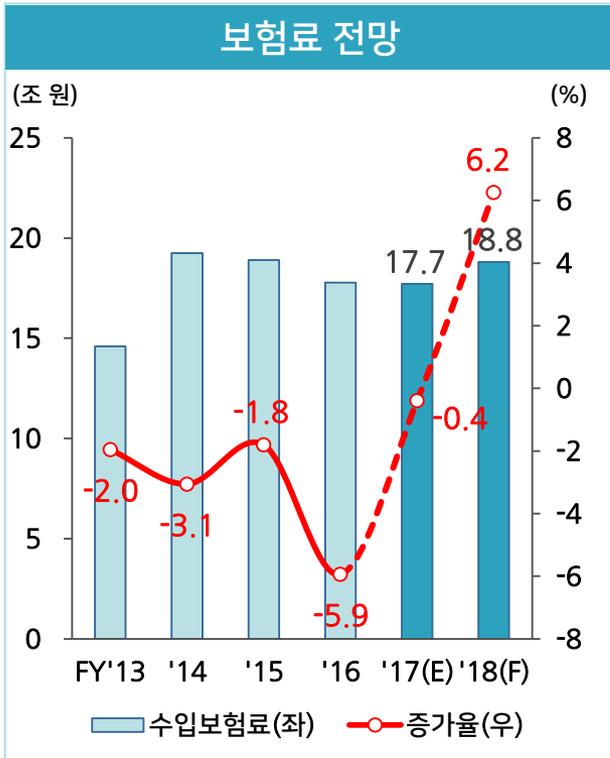
▼ 감소 요인

- 세제혜택 축소에 따른 수요 감소 지속
- 설계사 수수료 축소로 판매유인 감소
- 제도변화에 따른 부채 및 자본 부담



나. 변액저축성보험

- 2018년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6.2% 증가한 18.8조 원 전망
 - IFRS17 하에서 상대적인 저부담으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기대
 - 주식시장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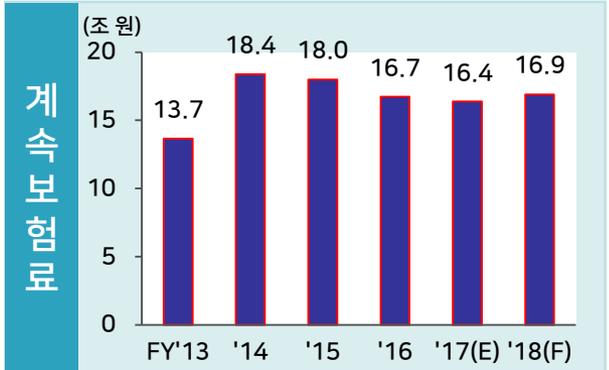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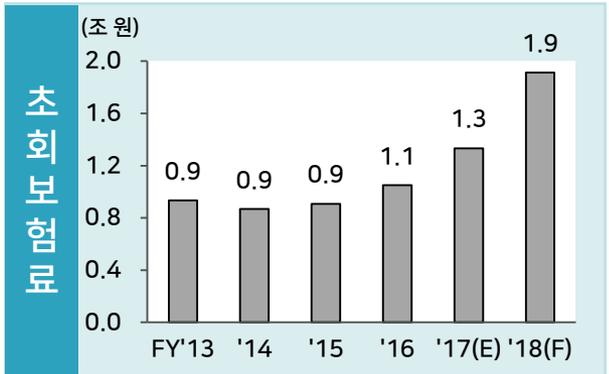


▲ 증가 요인

- IFRS17 도입시 상대적 저부담
- 낮은 공시이율에 따른 초과수익
- 주식시장 상승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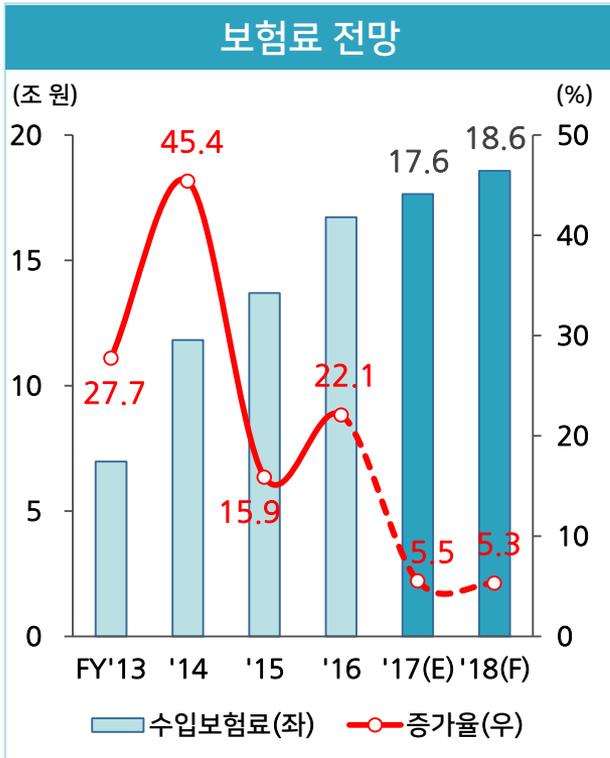
▼ 감소 요인

- 금융소비자들의 위험기피 현상 지속
- 변액연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
- 주식시장 지속 상승 불확실



③ 퇴직연금

- 2018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5.3% 증가한 18.6조 원 전망
 - IRP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수요 증대
 - DB/DC형 신규가입 정체 및 업권 간 경쟁으로 완만한 성장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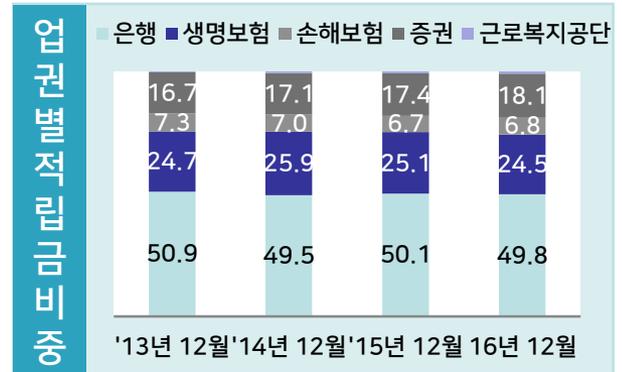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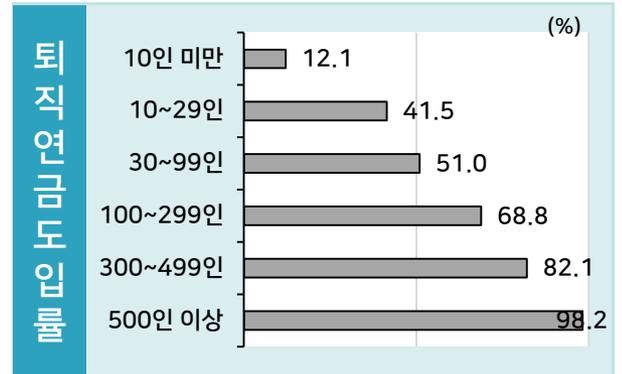


▲ 증가 요인

- 개인퇴직연금계좌(IRP) 가입 확대 효과 지속
-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 감소 요인

- 퇴직연금 신규가입 정체
- 업권별 이전 경쟁으로 보유계약 이탈 가능성
- 제한적 고용 확대



1)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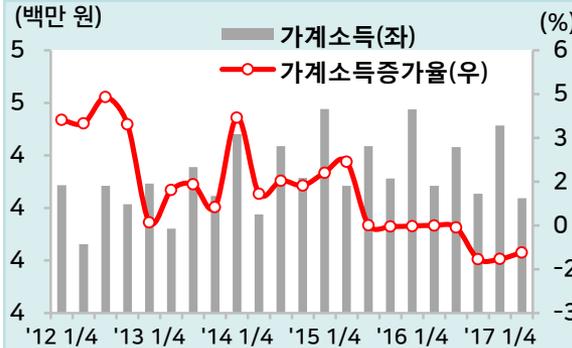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E)		2018(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손해보험 전체 (퇴직연금 제외 시)	80.2 (73.9)	4.8 (5.2)	84.5 (76.6)	5.3 (3.6)	87.0 (79.1)	3.0 (3.3)	89.2 (80.9)	2.5 (2.3)
장기손해보험	46.6	4.9	47.8	2.6	49.2	3.0	50.2	2.1
질병 및 상해	24.3	14.0	27.1	11.7	29.8	9.8	31.5	5.6
저축성 보험	10.5	-11.0	8.2	-21.2	6.3	-23.9	4.8	-24.0
운전자 재물 등	11.8	4.2	12.4	4.8	13.1	6.0	14.0	6.4
연금부문	10.4	-0.9	11.8	13.7	11.6	-1.4	11.9	1.8
자동차보험	15.0	10.7	16.4	9.4	17.3	5.4	18.1	3.2
일반손해보험	8.3	1.8	8.5	2.6	8.9	4.8	9.3	4.5

2018년 명목경제성장률 전망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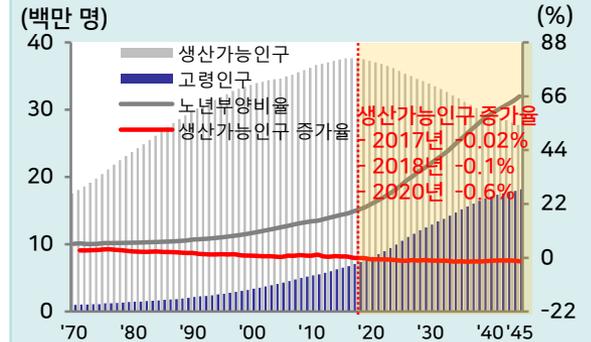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가계실질소득 감소 추세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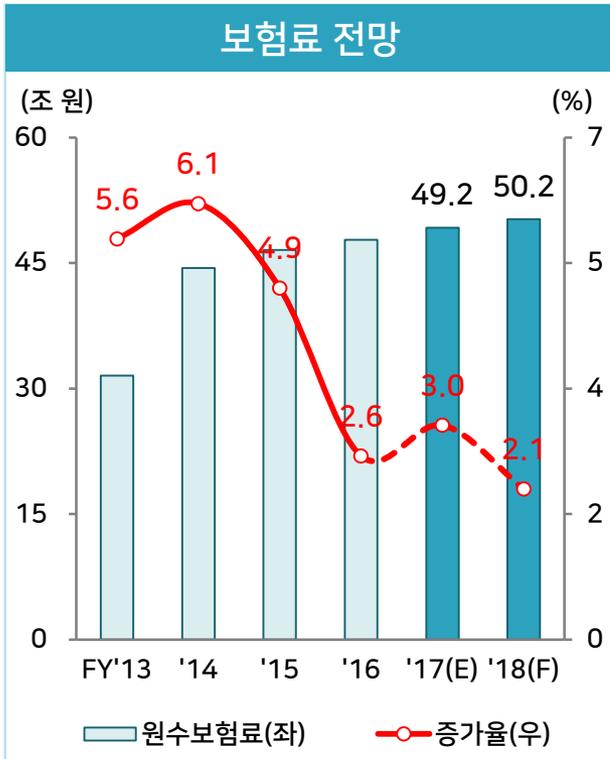
2017년 생산가능인구 최초 감소



주: 2018년 노년부양비율 19.6%
자료: 통계청

① 장기손해보험

- 2018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1% 증가한 50.2조 원 전망
 -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력 저하, 새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와 가입 및 유지 불안정
 - 저금리,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예상에 따른 저축성보험 감소 지속
 - 운전자보험과 재물보험의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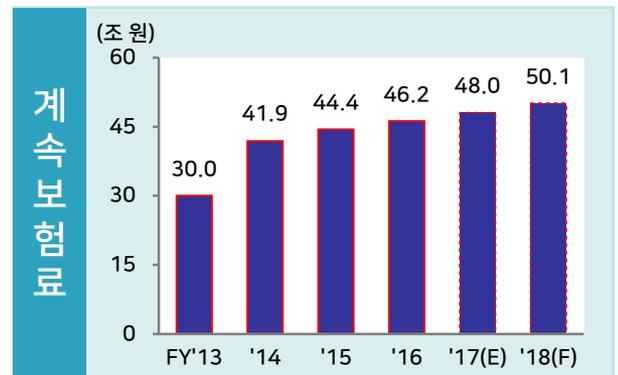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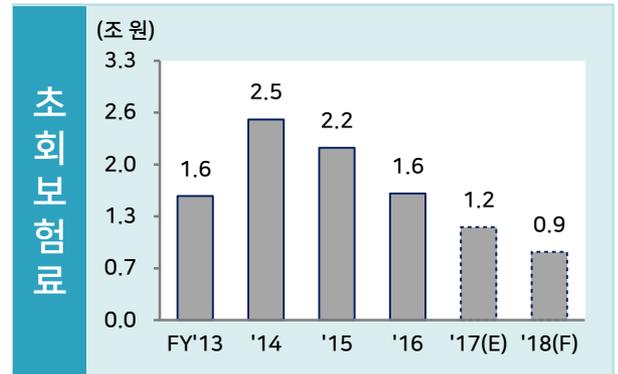


▲ 증가 요인

- 의료수요 증가
- 의료비 증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료 현실화
- 운전자보험, 재물보험 등의 성장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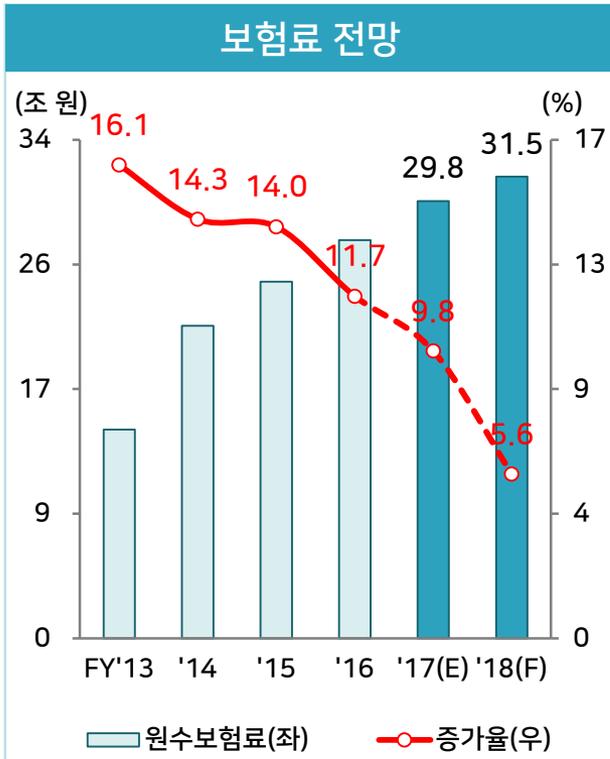
▼ 감소 요인

- 저금리 장기화
- 문재인 케어 정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와 가입 및 유지 불안정
-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예상에 따른 판매 위축(저축성보험)



가. 질병 및 상해

- 2018년 질병 및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5.6% 증가한 31.5조 원에 이를 전망
 - 높은 가입률 지속으로 인한 신규 가입 여력 저하
 - 신규가입 여력 저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가능성 및 신규 가입 및 지속 여부 불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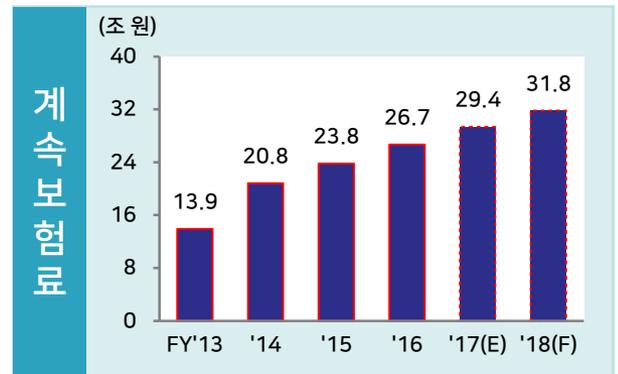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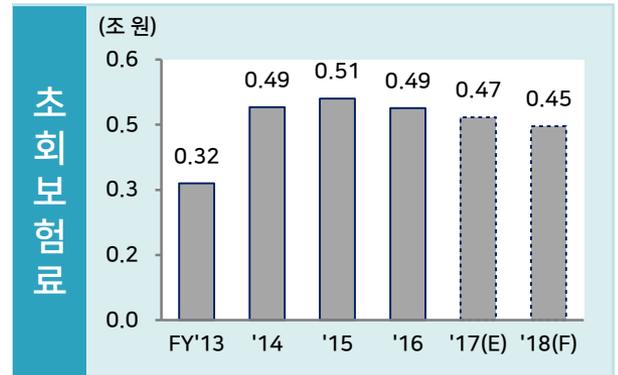


▲ 증가 요인

-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지속적 증가
-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증가
- 간편심사보험 시장 등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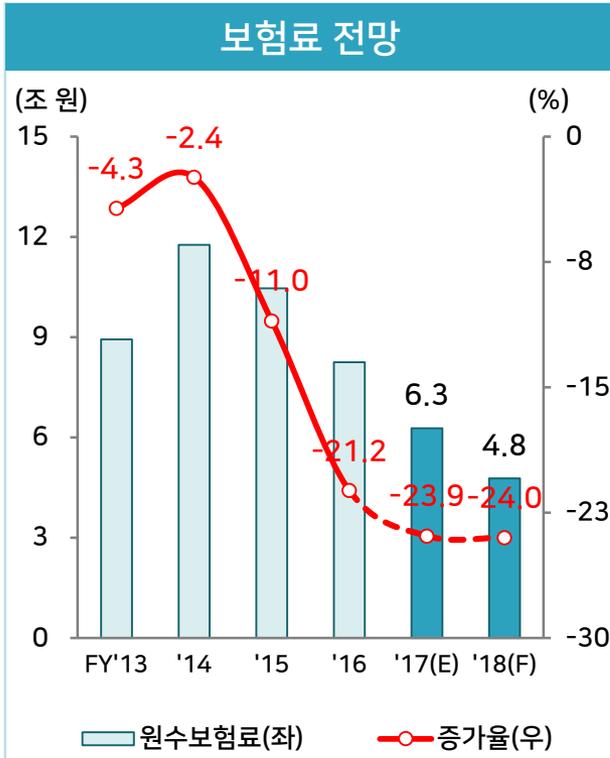
▼ 감소 요인

- 높은 가입률 지속
- 새정부 건강보험 정책의 불확실성



나. 저축성보험

- 2018년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24.0% 감소한 4.8조 원 전망
 - 세제혜택 축소* 이후 신규 판매 위축 지속 전망
 - 저금리로 인한 낮은 상품경쟁력과 IFRS17대비 소극적 판매로 지속적 감소
- * '17.4.: 이자소득 비과세요건 일시납 1억 원, 월납 15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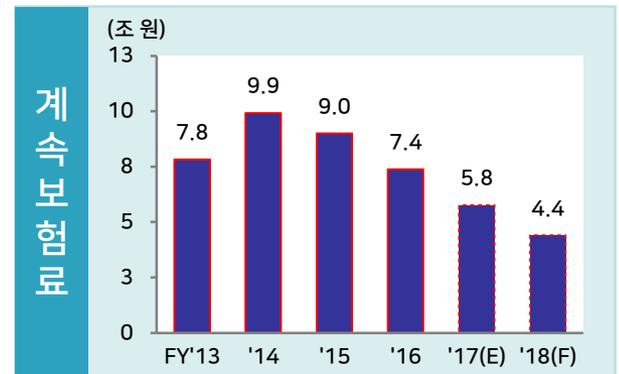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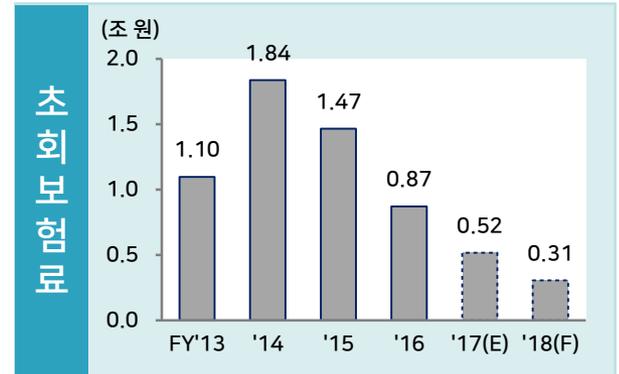


▲ 증가 요인

-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수요 확대
- 금리 인상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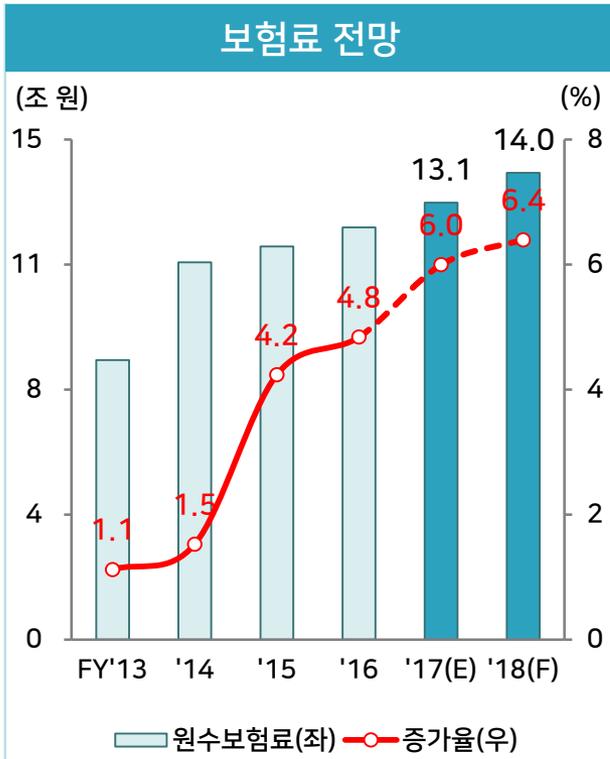
▼ 감소 요인

- 신규수요 위축 지속(세제혜택 축소, 가계소득증가 감소 등)
- 저금리에 따른 금리 리스크 부담,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전망 등으로 소극적 판매



나. 운전자, 재물보험 등

- 2018년 운전자, 재물보험 등의 원수보험료는 6.4% 증가한 14.0조 원에 이를 전망
 - 운전자보험: 운전면허 취득자 증가와 소비자의식 개선, 안정적 수익성 등으로 성장
 - 재물보험: 실손보상 상품 증가, 배상책임보험시장 확대, 마케팅 강화 등으로 성장
- * '17.6.: (운전자보험 + 재물보험) 원수보험료 >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
- 3~5년 만기 도래 계약의 갱신 가입여부는 불안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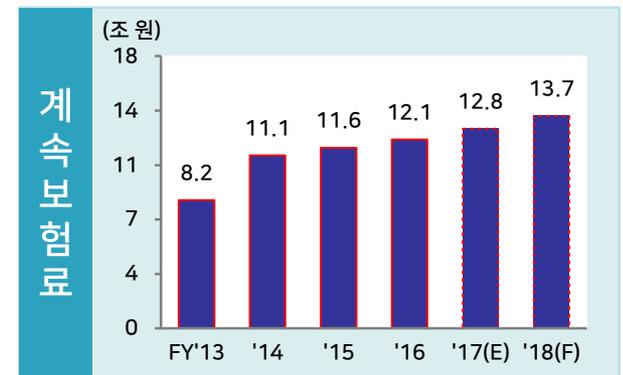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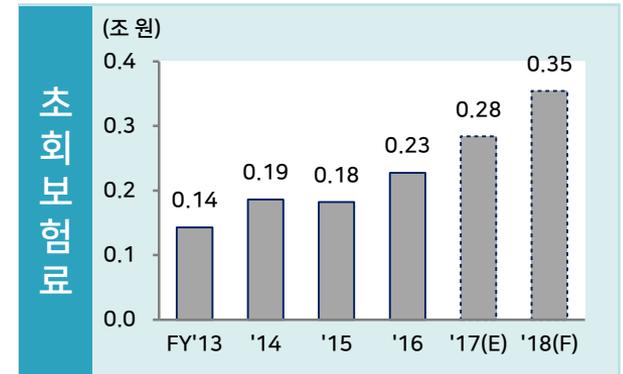


▲ 증가 요인

-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지속적 증가로 시장 창출
- 사회구조 고도화에 따른 수요 증가
- 낮은 손해율로 수익성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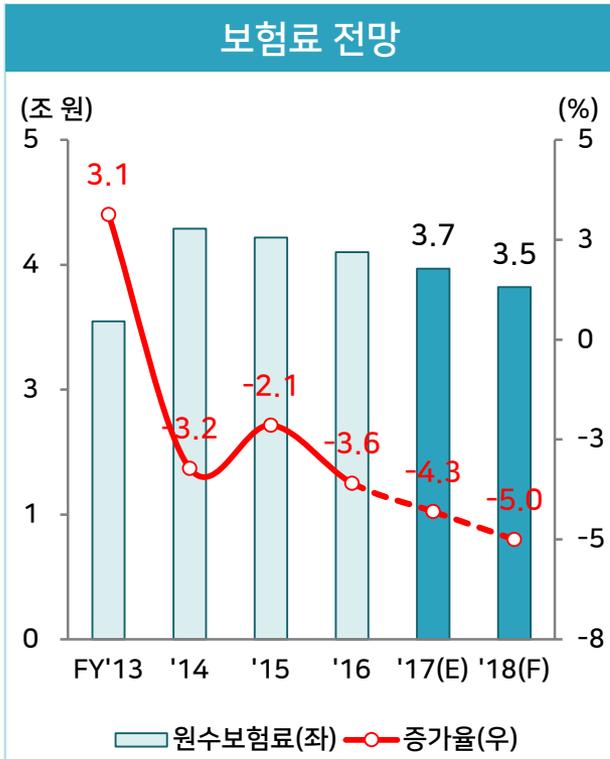
▼ 감소 요인

- 손해보험회사간 경쟁 격화
-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증가율 감소, 기업구조조정 지속 등
- 3~5년 만기 도래 계약의 갱신 가입 여부



가. 개인연금

- 2018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5.0% 감소한 3.5조 원 전망(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 저금리 장기화와 세제혜택 축소*로 상품경쟁력 약화 지속
 - *2014년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고소득자의 경우 중복과세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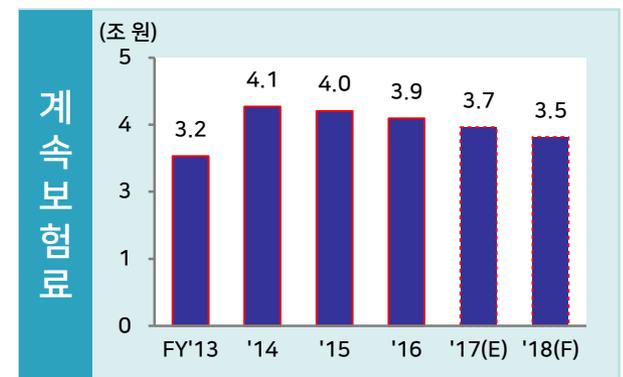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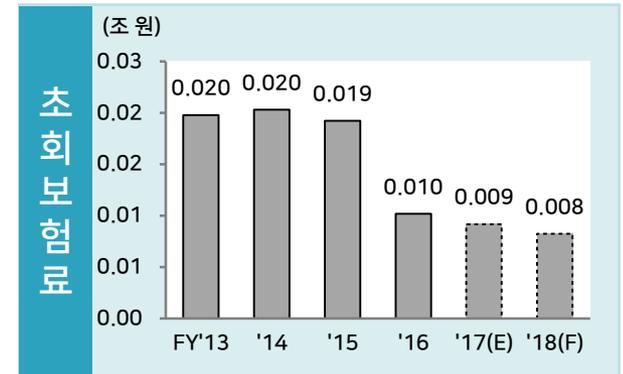


▲ 증가 요인

-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전 세대 고객니즈 증가
- 금리 인상 가능성

▼ 감소 요인

- 저금리 장기화로 경쟁력 약화
- 세제혜택 축소에 따른 상품자체 메리트 약화 지속
- 금융권 간 수익률 경쟁 심화



나. 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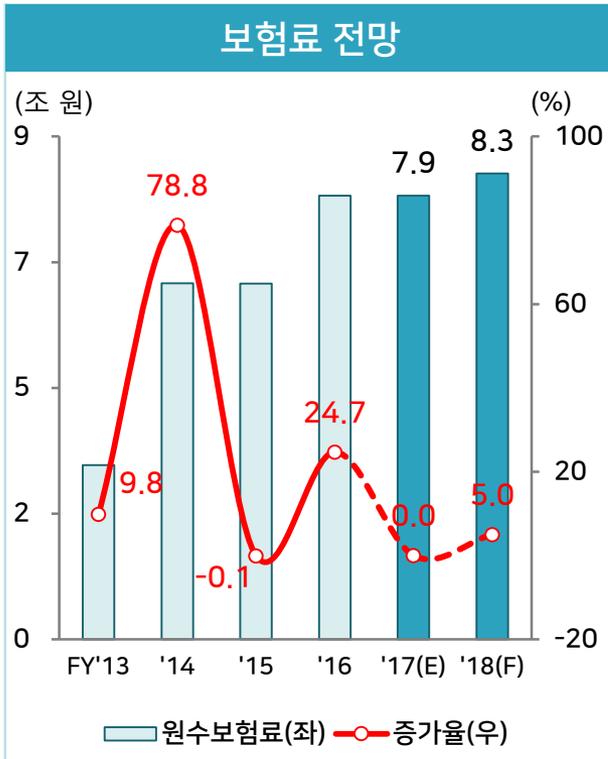
• 2018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5.0% 증가한 8.3조 원 전망

- 베이비부머 은퇴시장 확대*와 가입대상 확대로 인한 IRP 시장* 확대

* 1차 베이비 붐 세대는 '55~'63년생 세대로 인구비중 14%차지, 이 중 '58년생이 2018년 60세에 도달

* '17.7.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 미도입 회사 근로자 등 730만여명이 추가 가입 대상으로 편입

- 대기업 통상임금 인정 판례 증가 → 퇴직금 증가 → 퇴직보험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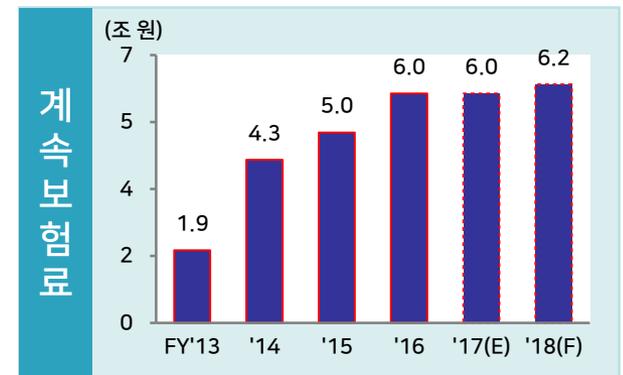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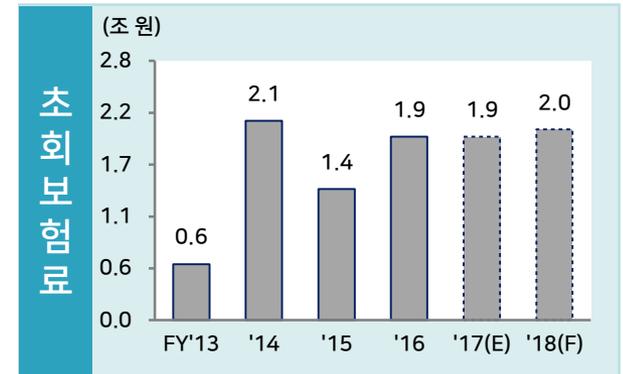


▲ 증가 요인

-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 → 은퇴시장 확대
-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시장 확대('17.7)
- 정부의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 가입 재추진
- 대기업 통상임금 인정 판례 증가

▼ 감소 요인

- 보험회사들의 소극적 판매전략
- 경기침체 지속 및 구조조정 본격화
- 타금융권 실적배당형 DC형 시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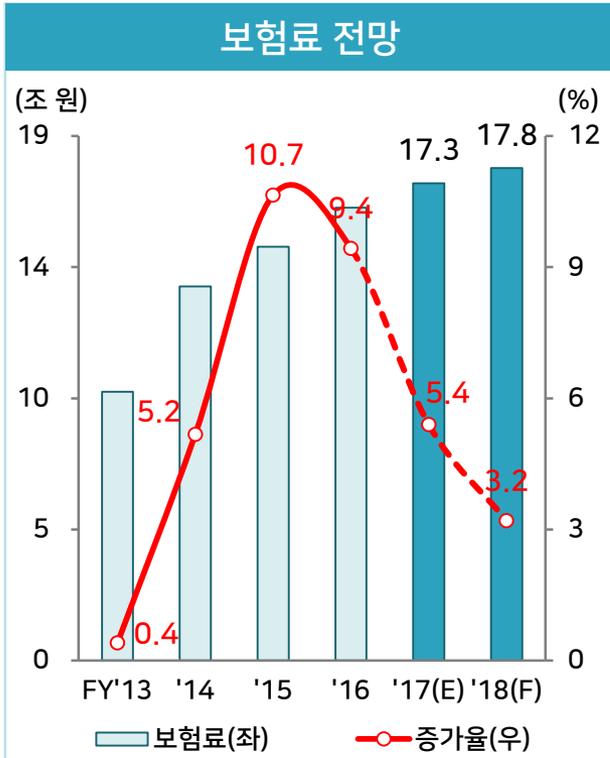


③ 자동차보험

• 2018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3.2% 증가한 17.8조 원 전망

- 자동차등록대수 완만한 증가 지속('17.6. 자동차등록대수 2천 2백만 대 돌파)
- 친환경차*, 첨단안전장치차, 수입차 등 고가자동차 증가('17.6. 현재 등록수입차 비중 8.0%)

* 정부의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등 정책 지속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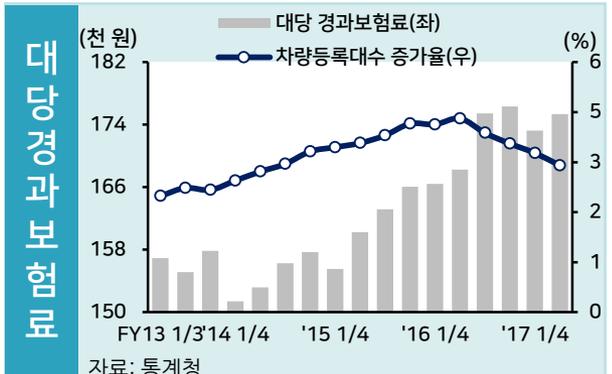


▲ 증가 요인

-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세 유지
- 친환경차, 수입차, 첨단안전장치차, 캠핑카 등 고가자동차 증가로 대당보험료 증가
- 대물가입금액 및 자차담보 가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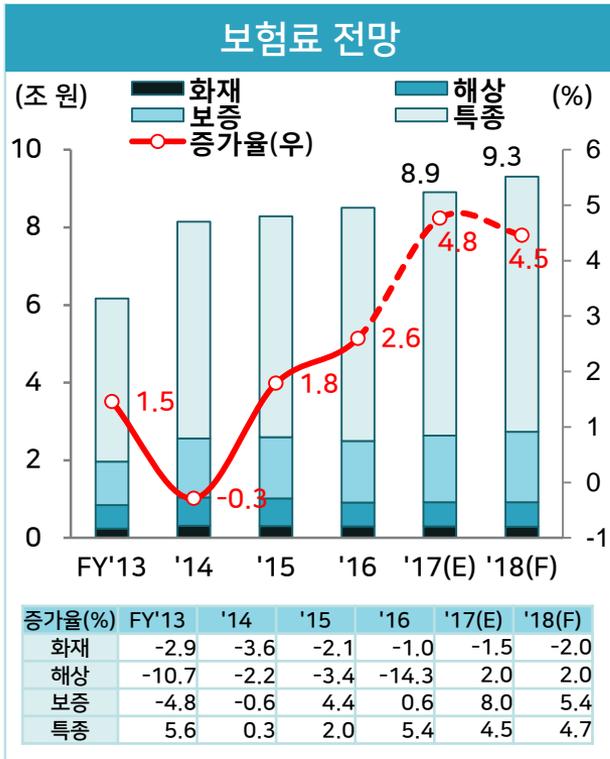
▼ 감소 요인

- 온라인보험 시장의 비중 확대
- 주행거리 연동 마일리지 특약 보험 가입 확대 및 첨단안전장치 장착 증가 → 자동차사고 감소
- 효율인하



④ 일반손해보험

- 2018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4.5% 증가한 9.3조 원 전망
 - 선박보험제외 해상보험 및 보증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의 성장세
 - 2017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17.7.)에 따른 기저 효과
 - 전세금보장보험가입 원활화 조치('17.6.)에 따른 증가 가능성



▲ 증가 요인

- 일반손해보험 시장 활성화 및 재난 배상책임보험('17.7.) 등 의무 보험 확대 노력
- 전세금보장보험 등 가입 활성화 ('17.6.~)

▼ 감소 요인

-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자니즈 감소
- 조선 및 해운산업 구조조정 지속과 요율 인하 및 문재인케어 정책 영향
- 초년도 의무보험가입 기저효과
- 2018년 SOC 정부예산 삭감 (△20%)

